

2019년 여름호 vol.155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올해의 이화인 추대
제8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ECC 정원의 작약꽃과 본관' (2018년 작)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부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8, 편집위원)
조성아(정의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8, 편집위원)

발행 2019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9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이웃에게 나눠 주는 풍성한 이화인이 되길
- 10 2019 올해의 이화인
정미정 동창 등 49인
- 13 제8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가족의 행복한 봄날 그림 잔치
- 17 축하합니다
유중근·신혜수 동창 외 4인
- 18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이화의 뿌리를 찾아서
- 20 총동창회 소식
각 과, 대학(원) 회장 및 국내 지회장 간담회 외
- 24 선교부 소식
감사찬양예배를 위한 일곱 차례의 준비기도회
- 26 제4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인터뷰
미국 재활의학 전문의 선재숙 동창
- 30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FIFA 국제심판 강사로 선임된 홍은아 동창
- 34 모교 사용 설명서
이름과 소속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학과가 궁금해요
- 36 이화인 모임 탐방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이화 아르모니아
- 40 모교 소식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식 개최 외
- 43 김영의 선생 추모 음악회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 선생을 기리며
- 44 대학(원) 소식
사범대학 외
- 45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 55 지회 소식
남가주 지회 외
- 63 동창 근황
신금례 동창 외
- 72 동창이 퍼낸 새 책
『소리 치는 나무』 외





동창의날 올해의 이화인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이웃에게 나눠 주는 풍성한 이화인이 되길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 합창제가 5월 31일(금)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동창의 날 행사가 치러진 교정 곳곳은 국내외 각지에서 모교를 찾은 동창들로 북적였다. 설렘과 흥분이 오가는 가운데 교정 이곳저곳에서 끊이지 않던 동창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더없이 쾌청한 하늘과 화사한 햇살,

그리고 맑고 서늘한 바람과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화의 교정을 더욱 빛나게 했다.

정오부터 모교 생활환경관 학생식당에서 시작된 김혜숙 총장 초대 오찬에는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는 1969년 졸업생들과 졸업 30주년을 맞는 1989년 졸업생들을 비롯한 많은 동창들이 초청되었다. 오찬 행사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



회장의 개회사와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식사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명경 부회장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물이 아름다운 5월, 선후배 간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개회 인사를 했으며, 성혜옥 선교부장은

“모교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했다.

동창들은 단과대학이나 과가 표시된 테이블에 서로 모여 식사를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목청을 드높였다. 영문과 동창 모임인 영학회에는 50주년을 맞은 동창이 38명인데, 이 중 15명의 동창이 3개월간 <아모르 파티> 음악에 맞춰 연습한 라인댄스를 5월 28일(화) 영학회의 날에서 공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오늘도 10명의 동창이 참석해 끈끈한 단합을 과시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80명 중 26명이 참석했는데 50년 만에 처음 본 친구도 있고, 자주 만나는 친구도 있어요. 이번 행사를 위해 일일이 연락하며 한 명 한 명 이삭 줍듯 주웠지요. 앞으로는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50주년 김진희(사회과교육 69) 동창의 말이다. 옆에서 사회과교육과 동창들이 “감개무량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학교를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초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인다.

“감회가 새롭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강당에 들어가 봤어요. 선교부장님 기도대로 이화인으로서 우리가 더욱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영순(가관 69) 동창이 소회를 밝히자, 주변에 앉은 친구들이 손 동창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염지를 올렸다. 손 동창은 “학교를 나가서는 이화라는 배경 덕을 많이 봤지요”라고 겸손해하며 이화로 공을 돌렸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

으며 말했다. “저희는 지난 4월,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남도 여행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60명 중에서 19명이 참여했지요.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가 매달 꼬박꼬박 만난다는 겁니다. 50년 동안이나요.”

사회학과 1969년 졸업 동창들의 연락 책임을 맡았다는 박금혜(사회 69) 동창은 “오늘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 친구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모교와 총동창회에서 재상봉 자리를 마련해 주어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50주년 정금예(사학 69) 동창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총동창회에 1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다시 모교에 올 수 있도록 동창의 날에 초대해 주어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졸업 50주년과 30주년 동창뿐 아니라 동창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선배 동창들도 눈에 띠었다. “모교에 오니 과거가 생각납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저는 이화동창으로서 김자경평생교육합창단에서 활동했었지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 입학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서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인 영문과 1969년 졸업생들



인봉(가정 55 입학, 의직 04) 동창의 이야기에서 짧은 날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느껴진다.

합창제 참가 번호 1번으로 무대에 선다는 대구 지회장 민경민(도예 86) 동창도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희는 대구에서 오늘 새벽에 버스를 대절하여 40명이 함께 올라왔어요. 5월 마지막 날, 날씨도 무척 좋아서 이화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창들이 함께 모인 잔칫집 같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무척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

144명 동창 중에 오늘 14명이 참석한 영문과 30주년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간사 조아란(영문 89) 동창은 “우리의 짧음과 열정을 보냈던 모교 캠퍼스에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우정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고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무척 감격스러워요.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학생식당에서 먹던 우동이 생각나네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어요. 50명 중 7~8명이 참석했지요. 졸업 30주년이라 생각하니 세월이 지나간 것은 조금 슬프지만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워요.” 이화정(피아노 89) 동창의 말에 같은 과 친구들이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과 별로 추대된 49명의 올해의 이화인

올해 졸업 30주년을 맞는 89년 졸업생들 중 과별로 ‘올해의 이화인’에 추대된 49명의 동창들은 고운 한복을 곱게 입고 식당 중앙에 모여 앉아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올해의 이화인 주변에는 축하 인사를 전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수시로 오갔다.

“동양화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양지혜 친구를 응원하러 왔어요. 어제 한국공공미술보호관리협회 발족식이 있었는데, 지혜가 상임 운영위원장을 맡아 노고가 컸어요. 봉사하고 베풀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습에 이화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보경(동양 89) 동창이 보내는 메시지이다.

성악과 올해의 이화인에 추대된 김애경(성악 89) 동창은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왔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모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하여 밀라노 콘세로바토리오와 아카데미아를 졸



김혜숙 모교 총장

업했어요. 졸업 후 이탈리아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며 평소 이화를 많이 생각하며 이화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중문과 올해의 이화인 김언주(중문 89) 동창은 “과 역사가 짧아 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창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서 감사하다”며 동창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컴퓨터공학과 올해의 이화인 장선영(컴공 89) 동창은 시어머니 홍임선(생명 60) 동창에 이어 올해의 이화인이 되었다. 어머니(강혜식, 약학 62)도 이화동창이다. 장 동창은 이화 정신을 이어나갈



50주년 대표 김성주 동창(왼쪽)과 30주년 대표 총미성 동창



'올해의 이화인'을 대표해 김영희 동창이 증서를 받고 있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중에는 자녀가 이화 재학생으로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학과 올해의 이화인 최지영(사학 89) 동창의 딸도 이화 재학생이다. “올해의 이화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이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딸이 이화에 다니다 보니 제가 학교에 다닐 때보다 이화의 오늘과 미래에 관심과 애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강당 앞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전년도 올해의 이화인들이 동창들에게 기념품을 판매했다. 안성희(국문 88) 동창은 “여름에도 사용 가능한 시폰 스카프나 배꽃 무늬가 프린트된 파우치, 부채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정가보다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소개했다. 오전 9시부터 오전·오후로 나누어 전년도 올해의 이화인이 6~8명씩 봉사하고 있었다. 강렬한 햇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동창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판매 수익금은 총동창회의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다채로운 행사로 이화 창립 133주년을 축하해

오후 2시부터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김순영(약학 62)·이경숙(영문 70)·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

고문 및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등 내빈과 졸업 50주년, 30주년 재상봉 동창 및 이화가족이 참석하였다.

사회를 맡은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가 이화 창립 133주년을 맞아 재상봉 동창들을 환영한다고 개회를 선포하며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다함께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다.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이 땅에 축복으로 주신 이화 133주년 생일을 맞아 감사 기도를 드린다”며 “30주년 및 50주년 동창의 재상봉의 시간을 갖는 오늘, 이화의 참모습을 찾고 하나 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화 사랑, 모교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18대 총동창회 임원단이 올해 3월 구성되었음을 알리며 “총동창회가 열린 마음으로 동창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선배들의 연륜과 지혜, 젊은 동창들의 열정을 하나로 엮어 모든 동창이 함께 발전해

'빛나는 이화인' 상 선재숙 동창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가며 굳건히 걸어가는 총동창회에 모든 동창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길 부탁한다”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에 동창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다음 순서로 올해 네 번째를 맞는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수상자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병원(VA Hospital)에서 40여 년 간 재활의학 전문의로 재직하며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해 온 선재숙(의학 72) 동창이 선정되었다. 선재숙 동창은 “이화에서 배운 사랑과 봉사 정신, 근면과 성실함으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었다”며, 이화인으로서 무한한 궁지를 느끼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재숙 동창은 이화인들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노력하며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이화 창립 정신에 부응하는 세계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선동창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전하며 소감을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9명을 대표하여 김영희(철학 89) 동창에게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수여했고,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50주년과 30주년 재상봉 동창’들에게 전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표하여 연단에 오른 김성주(경영 69) 동창은 “졸업 50년이 된 것이 믿기지 않게 세월이 빨랐는데 오늘 잠시 20대로 돌아간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화인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궁지를 갖고 살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모

든 동창들이 지혜를 모아 이화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 30주년 동창 대표로 단상에 선 홍미성(무용 89) 동창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화에 합격했던 때였다”며 모교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용기, 행복을 경험했다고 했다. 홍미성 동창은 “여성학을 수강하며 여성의 역할을 생각했고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이화였다”고 말하며, “미래 주인공인 이화의 후배들이 더 좋은 세상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선배들이 후배들의 생각과 관심을 이해하고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이어서 김혜숙 총장이 창립 133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한 동창과 가족들을 환영하며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 총장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서 200여 명의 이화학당의 학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 의지의 중심에 이화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모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여 여성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전을 여는 등 고귀한 이화 정신을 복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사진 2장을 발견하여 공개했음을 밝혔다.

김혜숙 총장은 모교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대서울병원 개원식을 가진 데 이어, 수많은 분야에서 졸업생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교원 임용고시, 변호사 시험 등에서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창업 등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끝으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단상에 선 김혜숙 총장은 다함께 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했다. 강당에 모인 모든 동창은 고귀한 이화 정신을 담아 다함께 ‘이화 만세’를 부르며 가슴 벅찬 순간을 연출했다.



(왼쪽) 올해의 이화인 입장 (오른쪽) 김숙자 모교 명예교수의 신나는 몸 물기에 올해의 이화인들도 함께했다

흥겨운 합창제 이어져

기념식이 끝나고 홍은아(체육 03) 회우부장의 사회로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올해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창들 가운데 각 과를 대표하여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9명의 동창들이 국악 반주에 맞추어 대강당 중앙 통로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눈처럼 하얀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를 곱게 받쳐 입은 49명 ‘올해의 이화인’의 화려한 입장을 지켜보던 동창들과 이화인 가족 친지들은 연신 탄성을 질러댔다. 무대에 오른 ‘올해의 이화인’이 한 명 한 명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환호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올해의 이화인’들이 무대 뒤쪽으로 정렬하여 자리를 잡은 후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역대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인 ‘이화 아르모니아’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동백꽃처럼 붉은 치마에 미색 저고리를 입은 합창단원들은 민요 메들리를 부르며 부채춤

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축하 공연에 이어 동창의 날 행사의 클라이맥스인 합창제가 이어졌다. 올해는 일곱 팀이 참여하여 기량을 발휘했다. 박소현(종음 99) 음악부장이 진행을, 모교 음악대학 박신화 교수, 윤명자 교수, 김은희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첫 번째 참가팀은 대구 지회 합창단(단장: 민경민, 지휘: 김미(성악 89), 반주: 이지현(성악 88))으로 곡목은 <내 평생 사는 동안(이영수 편곡)>이었다. 대구 지회는 이번 합창제에 참가한 유일한 국내 지회로, 고혹적인 검은색 드레스로 무대를 우아하게 채우며 아름답게 화음을 맞추었다. 모교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월 한 번씩 모여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대구 지회는 뛰어난 지휘자의 지도 아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연습해 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번째 참가팀은 생활환경대학(단장: 우미형

이화 아르모니아의 특별 공연

모교 음대 동창들로 구성된 이음회의 특별 공연



(의직 77), 지휘: 박미경(의직 76), 반주: 이은경(가관 83)) 합창단으로 <참 아름다워라>를 불렀다. 색소폰 연주자의 <넬라판타지아>의 감미로운 선율이 관중을 먼저 사로잡고,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진 평화롭고 정겨운 무대였다. 단정한 노란 블라우스와 흰색 바지를 갖추어 입은 생활환경대학 합창단은 1962년~1992년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참가팀은 조형예술대학(단장: 신영선(장미 88), 지휘: 김아영(도예 04), 반주: 김순미(장미 89)) 합창단으로 곡목은 <Sunny>였다.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조형예술대학 합창단은 금박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현란한 퍼포먼스로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여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조형예술대학 합창단의 <Sunny>는 ‘이화 언니들을 위한 현정곡’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사범대학(단장: 한은주(특교 79), 지휘: 김주연(종음 88), 반주: 이아람(피아노 01)) 합창단이 <주를 앙모하는 자>를 무대에 올렸다. 무지개 색 티셔츠로 정렬한 사범대학 합창단은 절도 있는 울동과 함께 노래를 불러 엄격하고 정돈된 무대를 보여 주었다. 사범대학 합창단은 2015년 재창단하여 5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사범대학이 존재하는 한 지속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사범대학 동창회장이 당연직 합창단장을 겸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 무대에 오른 악학대학(단장: 이미애(악학 79), 지휘: 김소희(성악 01), 반주: 옥다예(피아노 17)) 합창단은 <나는 나비>라는 곡을 공연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나비를 연상케 하는 노란색 블라우스와 옆트임으로 세련미를 강조한 바지, 발랄한 울동까지 곁들여 수준 높은 하모니를 이루

며 무대를 꽉 채운 악학대학 합창단의 평균 나이는 70세. 1974년 창단하여 열정과 화합으로 45년 동안 꾸준히 동창의 날 합창제에 참여한 놀라운 기록을 지닌 팀이다.

여섯 번째는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단장: 유희숙(법학 65), 지휘: 최양숙(법학 70), 반주: 오정순(법학 72)) 합창단으로 곡목은 <즐거운 여행자>. 흰색 블라우스에 은색 스팽글 타이를 매고 검정 하의를 입은 단원들은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지만, 경쾌한 리듬을 타면서 후렴구에 접어들자 모두 즐거운 여행자가 된 듯했고, 관중들도 발로 박자를 맞추며 호응했다. 올해로 창립 32년째, 86세 단원을 비롯한 대부분 단원이 창단 멤버이다.

끝으로 일곱 번째 참가자는 자연대학(단장: 최은영(물리 87), 지휘: 문주원(피아노 88), 반주: 김진우(피아노 88)) 합창단으로 <아모르 파티>를 선보였다. 흰색 상의에 스팽글 스카프를 두른 합창단원 전면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팽글 원피스를 입은 댄서를 배치하는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여 좌중을 압도했다. 올해는 특히 동창들의 대거 참여로 세대 간 교류가 활발했다고 한다. 즐거운 준비 과정을 통해 새롭고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었는데 무대 열기만큼 박수와 함성도 컸던 신나는 무대였다.

일곱 팀의 공연이 모두 끝나고 음악대학 합창단인 이음회(단장: 이선희(성악 76), 지휘: 황선미(피아노 93), 반주: 곽예림(피아노 12))의 특별 공연이 있었다. <Cantate Domno(H. Schutz)>와 <Lightning(G. Gilpin)> 두 곡이 합창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음회는 1986년 이화여대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 연주를 계기로 창단된 음악대학 동창합창단으로 1990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



로 지금까지 1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고, 30여 년간 수많은 교내 연주 활동과 국외 연주 활동으로 합창을 통한 문화 사절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합창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교 체육학과 김숙자(체육 64) 명예교수가 무대에 올라 '다함께 몸 풀기'를 통해 동창의 날 행사에 몰입하느라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무대에 앉아 행사장을 지켜보던 '올해의 이화인'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 나비처럼 가쁜하게 움직이며 몸 풀기에 동참했고, 객석에 앉아 있던 수많은 동창들도 함께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김숙자 교수의 흥겨운 동작을 열심히 따라했다. 여기저기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재미있고 손쉬운 노 교수의 몸 풀기로 대강당 가득한 동창들과 가족, 친지들은 온몸의 긴장을 풀며 활기를 충전했다.

끝으로 합창제 심사위원장인 모교 음악대학 성 악과 박신화 교수가 출전한 모든 팀의 공연에 대한 촌철살인의 심사평과 함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구 지회 합창단 <등상>, 생활환경대학 합창단 <이화상>, 조형예술대학 합창단 <최우수상>, 사범대학 합창단 <대상>, 약학대학 합창단 <그랑프리>, 법과대학 합창단 <챔피언상>, 자연대학 합창단 <대

1. 대구 지회
2. 생활환경대학
3. 조형예술대학
4. 사범대학
5. 약학대학
6.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7. 자연대학 합창단

한민국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일곱 팀 모두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즐겁고 행복한 자리였고, 수상을 위해 각 합창단이 나올 때마다 동창들은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올해의 이화인'이 퇴장함으로써 동창의 날 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동창들은 이화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 정신의 계승을 염원하고 참여한 모든 동창과 친지를 축복하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총동창회에서는 참석한 동창들에게 아이소이(대표이사: 이진민(국문 86))에서 제공한 치약을 전달했고, '올해의 이화인'들은 총장 공관 들에 모여 가족들과 함께 다과회를 즐기며 뜻깊은 동창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9 올해의 이화인 (1989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정미정(국문)
전 KBS아나운서,
(주)이든네이처 대표이사



김언주(중문)
(주)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최혜원(영문)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교수,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최내경(불문)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주임교수, 작가, 번역가



최민숙(독문)
솔프 심리상담소 소장



송강희(기독)
(주)삼포통상 상무이사



김영희(철학)
철학과 동창회장,
농어촌 미래 연대 연구원,
드림인공존 이사



최지영(사학)
『이화동창』 편집위원



백미순(정외)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종완(문정)
(주)해오름식품 대표이사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맹은주(사회)**

한국디자인총원 인재육성실장, 마포구 사회복지 공무원
세계디자인기구(WDO) 지역고문

**김경숙(사복)****채지영(심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선문숙(물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국제협력팀장

**황유경(생명)**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 소장, 전무

**장선영(컴공)**

주부

**박서영(피아노)**

추계예대 콘서바토리 출강,
앙상블 혜 코리아 부감독

**곽연희(관현)**

서경대학교 출강

**김애경(성악)**

성악가, 지도자

**정소희(작곡)**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겸임교수(전공주임),
(주)음연 대표이사

**서윤숙(종음)**

분당만돌린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양지혜(동양)**

(주)비큐비 대표이사,
한국공공미술보호관리협회
위원장

**박가나(서양)**

서양화 작가

**김선영(조소)**

조각가, 대학강사, 대안공간
우모하 Gallery Director

**전경화(섬예)**

이화여대 조형대학
섬유예술학과 초빙교수

**김수정(생미)**

이화여대 시각디자인학부
교수

**정호진(도예)**

선도예공방 대표,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이사

**김재영(체육)**

성남YMCA사무총장,
전 이화여대 겸임교수,
용인대 교육대학원 출강

**윤미정(무용)**

전 세명대 겸임교수,
(사)한국라인댄스협회
기획위원장

**김미영(교육)**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용희(유교)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진희(초교)
클나무언어교육원 대표



장해영(교공)
주부, 자원봉사자



박영희(특교)
전 한길학교 교장,
성민드림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이경림(영교)
풍문고등학교 교사
성민드림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양윤선(사회과교육)
농곡고등학교 교사



이미선(과교)
기상청 국장



이란(수교)
연세안암과 행정부원장



최은진(융합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소희(법학)
법무법인 지엘 구성원변호사



김재신(경영)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사)한국YWCA연합회 감사



장은주(국제사무)
경인여대 비서행정과 교수



박혜영(의학)
힘찬병원 내과 원장,
국위선양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화의료인



백경희(간호)
이대목동병원 인공신장실
간호파트장



최은경(약학)
인천부평구약사회 회장



이영미(제약)
한미약품 연구소 이사,
R&BD총괄 상무



윤소영(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영(의직)
우미건설 전무



조우균(식영)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제8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소: 이화교정, 대강당

후원: 주)모나미, 주)크라운 해태제과, 주)아이코닉스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제8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5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교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화동창의 자녀나 손자손녀, 모교 교직원 자녀 중 유

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이화동창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총동창회에서 주최하고 있다. 8회째를 맞는 올해 참가자는 213명(유치부 94명, 초등부 119명)이다.

어린이
제8회
이화가족
그림그리기
대회



행복한
봄날
그림
잔치

첫 참가자부터 베테랑 참가자까지 사연도 가지가지

5월의 이른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대강당 앞마당을 길게 비춘다. 상쾌한 바람도 살랑이며 지나간다. 대강당 양쪽으로 여러 개 마련된 테이블에서 총동창회 임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접수대가 뚝딱 차려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 테이블도 금세 마련되었다. 참가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김밥과 샌드위치, 과자, 음료수를 모아 도시락을 만드는 임원들의 손길이 바지런하다. ‘어린이날’이라는 오늘 행사의 주제가 적힌 종이도 한 옆에서 크게 펼려 있다. 참가한 어린이들이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 낼지 기대가 크다.

접수 시작은 오전 10시부터. 그런데 9시 10분에 벌써 접수대 앞에 참가자가 도착했다. 윤헤영(수교 82) 동창과 외손주 안서연(초등부)·안채연(유치부) 어린이 가족이다. “가족 소풍 겸해서 왔어요. 첫 참가라서 설레며 일찍 출발했더니 일착이네요.” 윤 동창은 딸네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면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첫 참가의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두 번째 참가자가 도착했다. 김현지(유교 75) 동창과 외손주 이민재(초등부) 어린이 가족이다. 딸과 사위까지 온 가족이 충출동했다고 한다. 이어 진선미(교공 03) 동창과 이승민(초등부) 어린이 가족도 접수를 마쳤다. “첫 참가인데 설레는지 아이가 어젯밤 그림 연습도 했어요. 등수에 상관없이 행사를 즐기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6년째 참가한 가족도 있다. 김지은(국문 04) 동창과 이주안(초등부), 이주아(유치부) 가족이다. “주안이가 네 살 때부터 참가했는데 내년엔 나이 제한으로 참가할 수가 없어 아쉬워요. 첫

참가 때는 둘째가 임신 중이었는데 올해는 둘째도 참가했어요. 정말 좋은 행사로 아이들이 더 즐거워해요.”



친구, 가족들과 만나는 기쁜 한마당

접수대에서 ‘서진’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불려 그 사연을 물었다. 알고 보니 같은 학년에 함께 교생을 나간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 아이들을 낳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모두 ‘서진’이라며 웃는다. 김윤지(영교 03) 동창과 민유진(초등부)·민서진(유치부) 어린이, 서주희(교육 04) 동창과 김서진(유치부) 어린이, 이미경(사회과교육 04) 동창과 권리나(초등부)·권서진(유치부) 어린이가 그들이다. “첫 참가인데 무척 즐거워요. 내년에도 참가하기로 모두 약속했어요.”

남수영(커미부 00) 동창과 김서윤(초등부) 어린이, 마미영(커미부 01) 동창과 변지원(초등부) 어린이, 이은주(커미부 00) 동창과 최설아(유치부) 어린이, 이연경(영교 07) 동창과 김재은(초등부) 어린이 가족은 과 친구들과 동네 친구 엄마가 뭉친 팀이다. “처음 참가했는데 다들 참가에 의의를 두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충분해요.”

박보현(환경공학 02) 동창과 김민서(유치부) 어린이, 조세이(환경공학 05) 동창과 오지유(초등부) 어린이 가족도 친구끼리 참가한 경우이다.

이화동창인 할머니와 함께한 어린이들도 많았다. 정춘희(약학 72) 동창은 친손녀 박주원 어린이와 이 행사에 여러 번 참가했는데 올해는 외손녀 전예진(유치부) 어린이와 첫 참가를 했다. “주원이는 올해 4학년이라 참가할 수 없어 무척 아쉬워했어요. 대신 예진이를 데리고 왔지요.” 몇 년째 행사가 있을 때 마다 3대가 모교 방문을 한다는 것, 올해도 외손녀와 함께 모교 방문을 할 수

있어 즐겁다는 정춘희 동창의 얼굴이 환하다.

작년엔 마감되어서 행사 참여를 못했다는 양 완신(화학 75) 동창은 손녀 이예나(초등부) 어린이와 올해 첫 참가했다. “제가 조교로 일했던 건물이 지금은 약대 건물로 바뀌었더라고요.

손녀에게 모교 캠퍼스를 구경시키고 싶었어요. 작년엔 참가를 못해서 몹시 아쉬웠는데 올해는 총동창회에서 알려 주셔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과 동기라는 놀라운 인연을 가진 백순명(커미부 70)·나은경(커미부 03) 동창은 김주호(유치부) 어린이와 첫 참가를 했다. 백순명 동창은 “모교 운동장이 ECC로 바뀐 것을 보니 옛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함께 포크댄스를 추던 남자친구와 연애 7년 만에 결혼해 아이 낳고 이제 그 손주와 모교를 방문하게 되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져요”라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등수에 관계없이 5월의 하루를 즐기다

오늘 행사는 모교 캠퍼스 어느 곳이든 자리 잡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이 특징. 캠퍼스 잔디나 벤치마다 그림 그리는 어린이들로 가득하다. 뜻자리는 필수, 손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그늘막 텐트를 준비한 팀들도 있었다.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다가 집에서 싸갔고 온 간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온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노는 어린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띠었다.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즐긴 뒤 어린이들은 풍선 아트 접수대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 나비, 풍뎅이, 칼, 토끼 등 원하는 모양을 뚝딱 만들어 내는 풍선 아트는 해마다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풍선 모양이 제각각인 것이 재미있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이처럼 창의적이고 개성이 강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올해 심사는 모교 조형대 교수 우순옥(서양 81) 심사위원장, 연성대 교수 봉지희(섬예 85)·전 이대부초 교사 안지영(섬예 02) 동창이 맡았다. 어린이들이 식사를 즐기는 동안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몰두했다. 이 대회는 여느 시상식처럼 1,2,3등의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



1. 심사를 진행 중인 심사위원들
2. 남상택 총동창회장
3. 우순옥 심사위원장





1. 나비, 풍뎅이 등 어린이들이 원하는 모양을 똑딱 만들어내는 풍선 이트 코너

2. 총동창회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3. (주)모나미와 (주)크리운해태 제과, (주)아이코닉스에서 상품을 후원해 주었다



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이라는 개성 넘치는 상을 유치부 5명, 초등부 5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그 외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행복 가득상’을 수여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상장과

상품을 받고 대회를 즐기도록 했다.

오후 2시, 홍은아(체육 03) 회우부장의 사회로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자리를 잡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나와 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등부 어린이들은 씩씩하게 무대에 자리를 잡았지만 유치부 어린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를 떠나 무대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한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이들도 간혹 있었다. 그래도 이날의 주인공답게 다들 의젓한 모습이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오늘의 주인공들을 위해 박수를 많이 쳐달라”고 한 뒤, “어린이들을 단상에 혼자 올려놓고 마치 군대 보낸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돌았다.

우순옥 심사위원장은 “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맡았는데 올 때마다 동심의 기분을 느끼고 간다”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어린이들의 솜씨에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순옥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은 밝은 미래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기다리면 된다”고 심사 소감을 마쳤다.

이어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시상이 이루어졌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기분 좋은 봄날, 이화가족의 즐거운 나들이는 화폭은 물론, 얼굴과 마음에 즐거운 그림과 추억을 그리며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주)모나미에서 어린이 문구 선물 세트를, (주)크리운해태제과에서 과자 세트를, (주)아이코닉스(뽀로로)에서 문구 세트를 후원해주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유중근(영문 67)·신혜수(영문 72) 동창 '**자랑스러운 이화인**' 선정

사회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귀감이 되는 이화동창에게 모교가 주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유중근 동창과 신혜수 동창이 선정되었다. 유 동창과 신 동창은 5월 31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식에서 상을 받았다. 유중근 동창은 대한적십자사 최초의 여성 총재를 지냈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체 정신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신혜수 동창은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힘썼으며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여성의 권리 향상에 기여했다.



조종남(의학 75) 동창 '**제28회 여의대상 길봉사상**' 수상

전 서울 YWCA 회장 조종남 동창이 한국여자의사회가 제정한 '제28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조 동창은 의과대학 학생 시절 무의촌 진료를 시작으로 평생 의료봉사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실천해 온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은 4월 13일(토)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63차 정기총회에서 거행되었다.



박혜자(정외 78) 동창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취임**'

박혜자 동창이 4월 15일(월)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동창은 19대 국회의원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선(과교 78) 동창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20대 회장 선임**'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명선 동창이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2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전국여교수연합회는 대학 사회 여교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1998년 여성 교수 4,500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비영리단체이다. 또한 이 동창은 (사)전국여교수연합회 주최로 6월 14일(금)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19년도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영미(영문 82) 동창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취임**'

조영미 동창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4월 22일(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조 동창은 서울시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까지이다. 조 동창은 모교에서 여성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화의 뿌리를 찾아서



5월 21일(화) 오후 2시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총동창회 선교부가 주관한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가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예레미아 33장 3절)는 말씀 아래,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혜숙 모교 총장, 장윤재 교목실장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 모교 동창과 재학생 등 이화가족이 참석하여, 이화의 고난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김민선(철학 05, 언어교육원 전임강사) 동창은 “이 시간 오직 한 분 이화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며 예배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오프닝 영상을 소개하였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영상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가 배경 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였다.

이어서 혼성 4중창단 ‘Music For You’가 찬양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자가 “주님만이 이화의 주인이시고 본당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이화를 덮고 세상을 채우길 기도드립니다”라고 외치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대표 기도를 통해

이화의 뿌리를 찾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건강하게 키워갈 믿음 주시며, 이화에 주신 사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이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다음으로 예배 무용 공연이 이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의 환희와 기쁨, 희망을 아름답게 형상화해 열연한 이은미(무용 11, 이화발레앙상블) 동창에게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호응하였다. 이 동창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치마를 입고 등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중언과 선포가 우리 이화임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장윤재 교목실장의 설교말씀이 이어졌다. 장윤재 교목실장은 “이화의 뿌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갈릴리여인들의 중언과 선포에까지 내려가 있다”며 “그 믿음의 씨앗이 133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로 인해 이 땅에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짹을 내기 시작해 척박한 조선 땅에 이화학당을 열었고, 김활란, 김옥길 총장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중언하였다. 장윤재 교목실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터를 닦아 주셨고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사랑의 열매를结게 해주셨으니, 선배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다”며 이화의 뿌리를 회고하고 이화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이어진 찬양 순서에는 감사찬양예배에 참석한 동창들이 모교 음대 박신화(성악과) 교수의 지휘와 조민지(피아노 17) 동창의 반주에 맞춰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모인 우리〉 두 곡을 합창하였다. 합창에 참석한 동창들은 예배시간 한 시간 전에 흰 상의와 검정 하의를 갖추어 입고 미리 모여 한마음으로 연습하였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 정성을 다해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

다음으로는 김다혜(국문 15학번) 재학생이 ‘이화에서 만난 하나님과 나의 사명’을 주제로 간증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김다혜 재학생은 함북 청진 출생으로, 북한 이탈 후, 2015년 이화여대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재학생 공동체인 어깨동무 동아리 사역을 맡고 있다. 김다혜 재학생은 “133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통일 후에 북한 땅 북한 여성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격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이화를 뿌리를 찾아서〉 영상을 통해서는, 스크랜튼 여사의 양화진 묘비에 새겨진(IHC 익투스-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예수님의 사랑이 이화의 뿌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로 사역을 펼친 150여 명의 이화 선교사들의 활약상을 보며 기도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순 전 선교부장의 인도로 예레미아 33장 3절 말씀을 합독하고, 합심 기도의 순서가 이어졌다. 김혜숙 총장은 “오늘 유관순 열사께서 이화학당



다닐 때의 사진 두 점을 최초로 이화 밖에 공개하였다”면서 “이화의 뿌리에 대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선배들이 한국의 역사, 이화의 역사를 어떻게 열어갔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마음을 채우며 삶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기쁨으로 바뀌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23만 명의 동창이 기도를 모아줄 것을 청하였다. 문병인 이화의료원 원장은 “주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학교와 재학생, 총동창회가 삼겹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순서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함께 찬양하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올린 후, 장윤재 교목실장의 축도로 감사찬양예배를 마쳤다. 대강당 뒷줄 양편에서는 학부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한편에서는 영어로 다른 한편에선 중국어로 동시통역하며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여,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김영주 전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고문으로 추대

2019년 4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18대 총동창회 임원진이 처음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 임원회를 개최했다. 총 40명의 인원 중 참석 33명, 위임 4명, 불참 3명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한미경(물리 88) 총무가 보고하고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457장을 부른 후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9년 4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였다. 김인정(컴공 87) 서기가 3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한 후 양수화(교대원 74) 교육대학원 회장의 동의와 꽈은아(대학원 88) 대학원 회장의 재청으로 서기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정영출(경영 72) 회계가 3월분 회계 보고를 하고 최은영(물리 87) 자연대학 회장의 동의와 이정화(독문 74) 인문대학 회장의 재청으로 회계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제18대 총동창회 신임 임원 소개가 있었으며, 각 부 및 대학(원) 보고를 마쳤다. 안건 토의로 우선 3월 열린 정기총회 평가가 있었다. 임원들은 “발전적인 정기총회가 될 수 있도록 세대 간 의견 소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단과대학별 동창회장이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한 뒤, 동창들의 의견이 총동창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4월 25일(목) 열리는 ‘각 과, 대학(원), 지회장 간담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내용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숙지하기 당부했으며, ‘올해의 이화인’ 추천은 4월 19일(금)까지 이지만 최종 서류 마감은 25일(목)까지 가능함을 안내하고 각 과에서는 반드시 간담회 날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5월 11일(토)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8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대해 안내하고, 당일 상품으로 (주)모나미(문구류), (주)크라운해태제과(과자), (주)아이코닉스(뽀로로 문구류)에서 후원을 받았음을 공지하였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5월 21일(화)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포스터를 홍보하며, 당일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5월 31일(금) 동창의 날 행사를 위한 후원 추천을 부탁했다.

정기 임원회 시간은 현행대로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하기로 하였으며, 바자회는 9월 26일(목)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의 투표를 거쳐 김영

각 과, 대학(원) 회장 및 국내 지회장 간담회 개최

4월 25일(목) 오후 1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약 90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과, 대학(원) 회장 및 국내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한미경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제18대 총동창회가 발족되어 첫 인사를 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참석한 동창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멀리 가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총동창회는 모든 사람의 힘이 모여야 발전할 수 있다”며 제18대 총동창회에 응원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했다.

총동창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찬을 즐긴 참석자들은 이어진 참석자 소개 시간에 큰 관심

을 기울였다. 졸업 후 각자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 동창들의 근황에 귀 기울이며 애정 어린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2019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5월 21일(화) 오후 2시에 열리는 ‘감사 찬양예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성혜옥 선교부장은 “시편의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뒤 “행사는 2시부터 시작하지만 참석자 모두가 합창단이 되어 하늘까지 올려 펴지는 찬송가를 부를 예정이니 검정 하의에 흰색 상의를 입고 1시까지 모여 연습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혜숙 모교 총장이 참석하여 모교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시대에 이화 역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인 만큼 미래가 더 기대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5월 이화 창립 기념행사와

역할 분담 논의

5월 정기 임원회가 5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총 41명 중 참석 37명, 위임 4명으로 성원이 되어 열렸다. 한미경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 임원회는 찬송가 464장을 부른 데 이어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김현민(특교 89)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정영출 회계의 회계 보고로 이어졌으며, 각각 동의와 재청을 받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안건 토의로 들어갔다. 4월 25일(목) 열린 간담회를 평가하며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참석자들이 많아서 자리도 여느 때보다 많이 배치했다”며 특히 저희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분위기도 좋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던 자리”라며 “총동창회에 관심이 높아진 이때 사이버 홍보를 포함해 각종 경로로 총동창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모교 창립 기념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5월 11일(토) 열리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업무 분담을 포함한 공지가 다시 한 번 있었으며, 5월 21일(화) 열리는 감사찬양예배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다. ‘아이소이’에서 5월 31일(금) 열리는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치약 1,500개를 협찬해 주기로 했다고 공지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강당에서 참석자들이 좌석배치표에 따라 착석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고, 기념식 시작 3분 전에 뒷문을 닫고 옆문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정숙한 분위기에서 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50주년 재상봉 동창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소가 점점 협소해지고 음식의 양이 부족한 면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대의료원 건강검진 이용비 감면 혜택(동창 본인 및 배우자 30% 할인, 동창 직계존비속 20% 할인)을 동창들에게도 알려주기를 부탁했으며, 동창회관 1층 황화방 리모델링을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정기 임원회 일정 마무리

6월 13일(목) 오전 11시 한정식집 한우리에서 참석 25명, 위임 13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6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김인정 서기가 5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한 데 이어 정영출 회계가 회계 보고를 하였다. 정 회계는 후원회비 납부 실적

을 보고하던 중 “올해 작고한 황은주(식영 75) 동창의 부군이 그동안 아내에게 《이화동창》을 보내 준 데에 감사하며 미화 300달러를 총동창회에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날은 5월에 열린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우선 5월 11일(토) 열린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어린이들이 시상을 기다리며 무대에 앉아 있는 현재 시상 방식을 개선해

야 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등수에 상관없이 참가한 어린이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무대에 올린 것이라는 다른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작품을 제출하고 시상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 시상식 시작을 앞당겨 보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내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선(장미 88) 조형대 회장은 “합창제 참가팀에 대한 선물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숙영(사회 77) 사회대 회장은 “식당 안내(배너, 풍선, 바닥 안내 등)와 홍보가 잘 되어 식당 찾기가 수월하고, 전년에 비해 식당 혼잡이 덜했지만, 입구에서 50주년 재상봉 동창 자리까지 동선이 기니 자리 안내자의 중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원활한 식당 자리 배치를 위해 단과대학 별로 사전에 정확한 참석 인원을 파악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9월 26 일(목) 열리는 ‘대바자회’에 대해 공지하며 바자회를 통해 모교에 대한 관심과 동창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므로 각 단과대학 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안건으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회칙 보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정기 임원회는 추석 연휴로 인해 첫 번째 주인 9월 5일(목) 열기로 하였으며, 11월 25일(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제13회)’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단과대학 회장들에게 부탁했다. 또한 후원이사 명단을 8월까지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제18대 총동창회 임원 명단

직위	이름	학과, 졸업년도
고문	김순영	약학 62
	이경숙	영문 70
	김영주	교육 71
회장	남상택	물리 74
	이명경	무용 77
부회장	조미숙	식영 83
	임 진	작곡 72
감사	한미경	물리 88
	김인정	컴공 87
총무	김현민	특교 89
	정영출	경영 72
서기	왕혜정	경영 89
	박병희	약학 84
회계	김곡미	생미 87
문화부장	류예행	관현 88
사업부장	박소현	종음 99
재정부장	이영희	사학 88
음악부장	홍은아	체육 03
홍보부장	박순원	사회 77
회우부장	성혜옥	영문 70
지역부장	이영옥	컴공 92
선교부장	이정화	독문 74
정보통신부장	오숙영	사회 77
인문대학 회장	최은영	물리 87
사회대학 회장	김미영	컴공 85
자연대학 회장	최은희	종음 81
공과대학 회장	신영선	장미 88
음악대학 회장	이숙경	체육 82
조형대학 회장	한은주	특교 79
체육대학 회장	정현미	법학 82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회장	이호경	경영 87
경영대학 회장	심 현	의학 80
의과대학 회장	임경희	간호 80
간호대학 회장	이미애	약학 79
약학대학 회장	백추혜	식영 72
생활환경대학 회장	이동은	국제학부 05
국제학부 회장	이향숙	대학원 88
대학원 회장	양수화	교대원 74
교육대학원 회장	김정숙	디대원 93
디자인대학원 회장	유지선	사복대학원 18
사회복지대학원 회장	김순옥	정책대학원 19

감사찬양예배를 위한 일곱 차례의 준비기도회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5월 21일(화)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준비를 위해 이대다락방전도협회 3층 예배실에서 4월 4일(목)부터 5월 16일(목)까지 총 일곱 차례의 목요새벽기도회를 드렸다.

목요새벽기도회 때마다 모교의 교수 및 동창들의 말씀과 간증 나눔을 통해 감사찬양예배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화의 신앙 역사와 이번 감사찬양예배의 주제가 ‘이화의 뿌리’로 정해지는 과정을 나누었다.

이 규(신촌아름다운교회) 목사는 이화가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의 산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자이니 선교를 통해 그 빛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이화정(제약 90, 모교 약학전공) 교수는 이화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영적 기지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성연(경영 88, 모교 경영학전공) 교수는 크리스천 교수의 사명은 학생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며, 틈틈히 경영대 기도 모임을 통해 학생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주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혜원(영문 79, 글로벌리더십개발원 공동원장) 선교사는 이화 초창기에 헌신한 지도자들(선교사들)이 전파한 ‘부흥’의 역사를 나누기 위해

이화의 뿌리를 찾아가는 역사를 돌아보자고 격려하였다.

이용희(가천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교수는 다니엘이 대국의 노예에서 축리가 되어 70년을 지냈던 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를 실행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거룩함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유중근(영문 67) 전 적십자총재는 비록 고난이 와도 충만한 자비와 사랑으로 정금같이 빚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였다.

중보기도 시간에 찬양, 감사, 회개, 간구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다. 이화의 무성하고 화려한 가지와 잎 속에 숨겨 있는 뿌리를 찾아 이를 지켜내어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이화가 되기를 소원하는 일곱 차례의 준비기도회였다.

준비기도회는 이화의 뿌리를 찾는 기도의 여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제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친밀해지는 부흥을 꿈꾸며 주님께 대한 거룩이 능력이 되어 간절함으로 이화가 회복될 것을 기도하게 되었다.

일곱 차례의 준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이화가 선교를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배출할 것을 비전으로 갖게 되었다. 그리고 5월 21일(화) 대강당에 모여 흔들리지 않는 터를 장윤재 교목실장의 설교로 다짐하며 김혜숙 총장, 문병인 의료원장,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동창들과 연합으로 드리게 되었다.

글·이수진(조소 05)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이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내 그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널리 세상에 알려 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1월 25일(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상 내용 상파와 상금 1,000만 원

■ 수상 후보 자격 사회복지, 의료, 법률, 종교,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년 이상 나눔과 섬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 추천인 자격 각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 기타 구비 서류, 접수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남상택



제1회 '이화문예상' 공모

이대동창문인회에서는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이화문예상'을 제정하였습니다. 글쓰기에 뜻을 두고 있는 신세대 이화인을 발굴하여 그 재능과 꿈을 격려하고 펼쳐나가도록 아래와 같이 제1회 '이화문예상' 작품을 공모하오니 동창 분들의 관심과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자격 모교 재학생

■ 장르 시(3편), 시조(3편), 소설(70~80매)

■ 상금 당선작 1명 100만 원, 우수작 2명 각 50만 원, 가작 5명 각 10만 원

■ 응모기간 2019년 9월 10일(화)부터 30일(월)까지

■ 보낼 곳 sara1045@hanmail.net, jung313@naver.com (제목에 '이화문예상 공모' 명시)

* 이름, 학과, 학년, 휴대전화 번호, 메일 주소는 작품 맨 뒤에 명기

* 당선작과 우수작은 3년간 본 회에 보유, 그 외 작품은 심사 후 폐기함

* 작품이 당선작 수준에 미달일 경우 당선작을 안 낼 수도 있음

* 작품은 순수한 창작품으로 미 발표작이어야 함.

■ 주최 및 주관 이대동창문인회(<http://cafe.daum.net/ewhamunin>)

■ 후원단체 이대학보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대동창문인회 회장 이정자

제4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인터뷰

미국 재활의학 전문의 선재숙 동창

“선재숙 박사는 환자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



2019년 5월 31일(금)에 열린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선재숙(의학 72) 동창이 제4회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하였다. 선 동창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병원 척수손상 센터(Spinal Cord Injury/Dysfunction Center, VA St. Louis Health Care System)에서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40여 년간 재직하고 있는 현직 의사이다.

선재숙 동창은 1973년 도미하여 워싱턴 대에서 재활의학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의술을 펼치고 있다. 척수가 손상되어 마비된 환자 케어가 전공 분야인데, 정성을 다한 헌신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앞서 여러 번에 걸쳐 귀한상을 받은 바 있다. 2011~2012년

연이어 Best Doctor Award와, 2014년에는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병원 의사 500명 가운데 뽑는 올해의 의사상(VA St. Louis Medical Staff Award)도 받았다. 특히 미국 상이군경협회 PVA(Paralyzed Veterans of America)에서 주는 2015 Speedy Award(Non-Member Category)를 받았는데 이는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인 조너스 소크, 캐네디 전미 대통령, 밥 돌 전 미 상원의원도 받은 권위 있는 상이다.

상을 받기 위해 한 달여의 긴 휴가를 내고 한국을 찾은 선재숙 동창을 지난 5월 중순 모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모교 총동창회로부터 좋은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겸손해하는 선 동창의 모습에서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모교를 마주한 여학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 상이군경협회에서 주는 최고 상 받아

선재숙 동창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의사가 되리라 마음먹은 후 이화여대 의대를 마음에 1순위로 품고 진학했다. 선 동창은 의대 진학 후 동대문 이대병원 옆 의과대학 더운 목조건물에서 땀 흘리며 실습했다. 그리고 모교 의과대학을 마치고 원주기독병원에서 인턴 과정 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했다. 당시에는 재활의학이 신학문 분야였고, 여의사로서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선택했다. 환자를 케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 동창은 척수손상센터(이하 SCI센터) 특성상 30~40년씩 환자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잘 맞았다고 한다.

선재숙 동창이 일하는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병원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보훈병원이다. 미

국 사회에서는 재향군인이 갖는 위상과 대우가 대단하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오면 나라가 너희를 지킨다는 원칙이 있으며 다쳐서 돌아온 경우는 더한 존경심과 케어를 한다.

미국 전역에는 144개의 재향군인병원이 있는데, 그 중 SCI센터는 25곳이 있다. 워싱턴 D.C.에 중앙 병원이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중서부 중심 병원으로(허브 병원) 산하에 일리노이, 미주리, 캔자스, 켄터키 주 등 9개의 주 병원이 속해 있어 병상 수도 많고 의료 질이 높다고 한다. 미국 전역에는 총 25만 명의 상이군경이 있고, 그중 4만 2,000명이 척수 손상 환자이다.

“상이군경들은 평생 많은 혜택을 받아요. 평생 의료 치료와 장비 지원을 받지요. 손상 정도에 따라서 평생 최대 월 9,000달러의 급여를 지원받고, 처음 집 장만할 때 5만 달러를 지원받아요. 제 환자들은 거의 움직임이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주기적으로 수리를 받거나 교체를 받고 있어요.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개조하는 등의 모든 장비도 평생 지원받고 있습니다.”

6년 전 대한민국상이군경협회 회장단이 선재숙 동창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 여의사가 미국 재향군인병원 SCI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미국에서 상이군경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난 것을 보고 조사해 가서 한국에 돌아가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 동창은 1947년 출생으로 세 살 때 한국전쟁을 겪었다. 할머니 품안에 있을 때 집안으로 들이 닥친 북한군이 아버지를 찾다 그냥 돌아간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70주년



남편 박종관 박사와 이화 교정에서

인데 부산으로 피난 갔던 세 살 어린 아이가 참전 국인 미국 재향군인병원 의사가 되어 휠체어를 탄 상이군경을 치료하고 있다는 인연이 더욱 감명 깊게 느껴진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국전 상이군경을 만날 때면 그 인연이 특별히 소중하다고 한다.

“병원에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까지 참전한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환자들도 있는데, 그 중 16세에 입대해서 한국전쟁으로 척수를 부상 당한 환자를 지금까지 진료하고 있어요. 그 환자는 오십 년이 지났어도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김치’, ‘밥’, ‘불고기’ 등을 말하고 ‘아리랑’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래 입원한 환자에게는 집에서 불고기나 김치 등을 갖다드린 적도 있어요. 그분들을 대할 때면 특별한 관심이 가지요. 요즘은 파견 지역에서 얻은 트라우마 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 같은 돌봄, 정성을 다한 진료

선재숙 동창은 가족같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자들을 ‘Extended Family’라고 생각하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봤더니, 환자들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 의사들은 정시에 퇴근하지만,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근 시간 넘겨서 기다렸다가 궁금해할 환자들을 위해 빨리 애기해 주고, 내 시간을 더 내어서 환자를 보니, 나중에는 환자들이 ‘닥터 박, 왜 집에 빨리 안 가느냐’고 걱정해 줄 정도였지요.(웃음)”

선 동창 본인은 행정적인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SCI센터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2013~2014년 2년간 수장을 맡게 되었는데, 가족같이 환자를 돌보는 마인드로 조직을 이끌다보니 환자들과 병원 측이 감동하고,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한다.

환자 개개인이 가진 배경을 고려하여 전인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상이군경 환자들을 오빠나 남동생, 아버지나 삼촌 등으로 생각하며 본다면, 환자를 케어 할 때 훨씬 애착이 가고, 일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이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살피는 사람의 정성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또한 대가족과 비슷한 방식으로 센터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The Heart And Soul Of SCI Center’로 표현되기도 했다.

사실 선 동창은 연구 실적이 많지 않지만, 추천인인 Stan Brown 지회장은 ‘환자를 돌보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성적’이라는 말로 변

호를 해주었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공헌한 사람을 뽑았는데, 우리 환자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돌본 사람이 닥터 박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진정어린 추천서를 써주었다.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SCI센터 상이군경들은 제 부모님 나이였습니다. 젊은 의사로서 저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에게 더욱 특별한 애정과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 연민은 더 크고 굳건해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선 동창이 답사를 했을 때 참석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선 동창이 2016년에 받은 PVA Speedy Award는 미국 상이군경 단체에서 주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일 년에 한 번 미 전국에서 상이군경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공헌한 사람 중, Member(상이군경)와 Non-Member(일반인) 한 사람씩 선정한다. 1957년에 제정된 상으로 사회적인 명성과 업적이 많거나, 거액을 기부하거나, 또는 의학적으로 공이 많은 사람을 뽑아 왔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때 일주일 정도 회의를 거듭하며 심의를 거치는데, 단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선 동창을 수상자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고, 여의사로도 첫 수상이라 더욱 영광스럽고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선 동창은 오히려 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제가 보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전신 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에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대해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행히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라면 기타를 쳐서 음반을

만들어 선물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를 추천해 준 Stan Brown 자신도 전신마비 상이군경이지만 변호사로서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올 정도로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어요. 사지가 마비되었으면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밝게 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이제야 선 동창에게서 밝고 긍정적인에너지가 넘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늘 되새기며

모교를 다니면서 이화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나는 스승이 있는지 묻자 망설임 없이 이명수 안과 교수님이란다. 나중에 이대 병원장(제8대 병원장, 1970. 5~1973. 4)을 역임하셨는데, 기독교 정신이 철저하셨고, 인자하고 친절하게 학생들을 대하셨다고 회상한다. “병원장 하실 때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겸손하게,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 그리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성심껏 일을 해서 임무를 잘 마치셨지요.” 겸손하면서 타인을 존중해 주는 선 동창의 모습이 스승과 많이 닮아 있다.

선재숙 동창은 이화여대 세인트루이스 지회의 후원이사로서 동창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해외 동창들의 활동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이름이 진선미회예요. 매달 모임을 갖는데, 저는 병원 일로 자주 못 가서 1년 회비를 미리 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주 끈끈하고 가족적인 모임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주로 한두 시간 거리 내의 동창들이 참석해요. 합창단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화동창》을 통해 이화의 발전상을 살샅이 읽어보고 있다는 선 동창은 모교가 많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진 것 같다고 달라진 모교의 모습에 관심이 많다.



Speedy Award 수상식 당시 추천인 Stan Brown(왼쪽)과 함께

선재숙 동창의 모교 방문에 길잡이 하려 동행한 부군 박종관 박사(산부인과 전문의)는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을 보태며 든든한 외조의 힘을 보인다. 두 명의 자녀 Dr. Lawrence Park과 Dr. Stephanie Zwicker도 모두 의사이다. “인턴 시절, 사흘에 한번 당직으로 아기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하루가 지나서 데리고 올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라면서 잘 성장해 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체력적인 한계와 최첨단 의료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고충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느끼는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SCI센터의 일원으로 몇 년 더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다. 겸손하면서도 때론 단호하고, 한국적인 인정이 가득 찬 성품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 낸 선 동창은 후배들에게 “항상 이화가 제 뒤에 있다는 생각으로 궁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화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도 이화인의 궁지를 갖고 진선미 이화의 정신을 받아들이 성심껏 살아갈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평생 후회하지 않을 가슴 뛰는 일에 청춘을 바쳐 보라



모교 체육과학부 교수이자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이사, 아시아축구연맹(AFC) 심판 강사·평가관으로 활동 중인 홍은아(체육 03) 동창이 지난 3월 27일(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 기술강사(Referee Technical Instructor)에 임명됐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국제심판으로 활동했던 홍 동창은 2003년 역대 국제심판 중 최연소(23세) 자격 획득으로 화제를 낳은 것에 이어, 이번에는 최연소 국제심판 기술 강사 선임 소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AFC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강도 높은 심판 강사 인증 평가를 통과해 FIFA 국제심판 강사로 추천, 선임된 것이다.

무모하지만 당찬 도전

“중학생 때인 1994년 한국 대 스페인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경기를 관람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눈길을 줬지만 이상하게 저는 심판에게 눈길이 갔어요. 막연하게나마 ‘나도 대학 가면 국제심판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꿈을 갖게 되었지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공상하기를 즐겼던 홍 동창은 1999년 2월 모교 입학이 결정되고 나자 4년 후 무엇이 되어 있을까 상상하다 과거 품었던 축구 국제심판의 꿈이 떠올랐다.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고 주변에 조언해 줄 사람도 없던 시절, 국제심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12분 달리기를 포함한 체력 테스트를 한다는 것뿐이었다. 무작정 114에 문의해 대한축구협회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국제심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12월에 신입 심판 강습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접수해 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정작 서류 접수 기간이 되자 ‘엘리트 선수 출신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체육학과 여대생에게 기회를 줄까?’라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도전해 보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에 ‘훌륭한 국제심판이 되겠다는 각오로 지원했으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장문의 자기소개서를 썼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쓴 자기소개서가 한동안 협회에서 회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도전은 2000년 대한축구협회 2급 심판 자격 취득, 교환학생으로 잉글랜

드 리버풀에 가서 1급 심판 활동, 2002년 대한축구협회 1급 심판 자격 취득과 월드컵 심판 연락관 활동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03년 1월에 FIFA 국제심판 자격 획득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만 23세, 국내 심판으로는 최연소였다. ‘졸업이 2003년 2월이고 매년 1월에 국제 심판이 발표되니, 나는 2003년 1월에 FIFA 배지를 달고야 말겠다.’ 국제심판을 준비하며 다이어리에 메모해 두었던 결심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수업 마치고 축구 경기가 열리는 효창운동장으로 달려가 심판 보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방학 때도 예외가 없었고요.” 벚꽃과 목련이 만개한 5월의 캠퍼스를 즐기는 낭만은 홍 동창에게는 사치였다. 그럴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시작했지만, 심판 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그 매력에 빠졌다. 그래서 힘든 줄도 몰랐다.

공부와 심판 활동의 시너지 효과

필드에서 선수만큼, 아니 선수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하다 보니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체력 관리가 항상 1순위였다. “국제대회 배정 때마다 체력 테스트를 거치는데,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짐을 싸야 하지요. 철저한 체력 관리는 축구 종목 심판의 기본적인 책임이기에 운동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른 일정을 짜어요.”

홍 동창은 국제심판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축구대회 준결승전 주심, 2010년 아시아인 최초 잉글랜드 여자 FA컵 결승전 주심, 2010년 한국인 최초 FIFA 주관 대회 개막전 주심(2010 FIFA U-20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는 중에도 모교 경영학 석사(2004~2006년)와 영국 러프버러(Loughborough) 대학교에서 스포츠 정책으로 박사 학위(2005~2010년)를 받았다. “제 경우에는 공부하면서 심판 활동을 병행한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심판 활동으로 풀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피땀의 결실이 2009년 AFC가 시행하는 ‘올해의 여자 국제심판상’ 수상이라는 기쁨으로 돌아왔다.

너무 일찍 시작해서였을까? 홍 동창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돌연 국제심판 은퇴를 선언했다. “남들은 그제야 시작하는 나이인데 은퇴를 한다니 주변에서 놀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은퇴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에 신뢰했던 선배들이 그런 홍 동창을 말렸다. “은퇴 후 곧바로 활동하면 엘리트 강사가 될 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축구대회 준결승전에서
주심으로 활약하는 모습(가운데가 홍 동창)



있지만, 공백을 두면 별도로 코스를 더 밟아야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AFC 본부가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한 번 갔다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이 심판계를 아예 떠나려던 홍 동창의 마음을 돌려놨다. 홍 동창도 국제심판으로서 누린 혜택도 많으니 이제는 심판 후진 양성이나 협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 뒤 협회의 추천으로 2013년부터 AFC 심판 강사와 심판 평가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말, 유학에서 돌아온 홍 동창은 모교에서 시간강사를 하다가 중앙대 학교체육연구소에서 1여 년간 연구교수를 지냈다. 그리고 2014년 모교 체육과학부 조교수로 부임해 강단에서 또 다른 체육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또다시 교수와 심판 강사라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야의 일을 병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심판 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주된 업무는 전 세계 211개의 MA(Member Association, 축구협회)에서 활동하는 심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경기 규칙과 경기 진행 방식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그간의 심판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게 되지요.” 각 MA에서 FIFA에 이론과 실기 면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요청하면 FIFA에서는 알맞은 강사를 배정해 주는 식이다.

심판 강사 중에서도 기술 강사인 홍 동창은 MA 강사 코스에 들어가면 4~5일 정도 강의를 맡게 된다. 또 FIFA의 U-20, U-17, 월드컵 경기와 올림픽 경기 등에 배정되면 4~5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경기 영상을 통해 심판들의 경기력을 분석, 평가하고 강의와 브리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홍 동창은 “FIFA 심판 강사는 AFC 강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기에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고 털어놓는다.

국제심판으로서의 언어 소통 능력은 일찌감치 외국어 습득을 강조하신 부모님 덕분에 기를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혼자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것. 그때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그렇게 배웠던 영어가 아니었다면 국제심판은 물론이고 강사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1년간 영국 교환학생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국제심판은 스포츠 외교관

홍 동창의 말처럼 과거에는 초·중교 학생들의 남자 축구 경기에는 여자 심판이 들어갈 수 있어도 남자 고

러프버러 대학 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지도교수님과 함께

2010년 잉글랜드 여자 FA컵 결승전에 아시아인 최초로 주심을 맡았다



등학교 경기의 주심이나 대학, 프로 경기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체력에 따른 차이가 심판으로 설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필드에서 남자 선수들과 동등하게 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홍동창은 국제심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윤리적인 면을 꼽는다. “심판은 명예직이니 만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아예 이 직업을 택하지 말아야 해요. 심판을 아무리 잘 봐도 이권과 관련된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잊게 되니까요. 그다음으로는 열정과 강한 정신력이에요. 여론과 관중의 시달림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공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심판의 관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홍동창이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은 지금은 은퇴한 스웨덴의 안데르스 프리스크(Anders Frisk) 심판이다. “그분은 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심판을 보셨는데, 그 경기들은 제가 워낙 많이 분석했던 터라 그분의 활약상만큼은 늘 궤고 있었죠. 그 분만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선수들과 소통하는 태도, 그리고 필드에서의 러닝 스타일까지 좋아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홍동창은 ‘제2의 홍은아’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심판이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업이라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목표를 국제심판에 두고 심판 양성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다 보면 여러 방면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고 자연스레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네트워크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스포츠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스포츠 외교죠. 심판이야말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인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는가. 그때마다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 그리고 경기를 무사히 치른 후에 전율처럼 온몸에 퍼지는 가슴 뛰는 희열이 그를 일으켜 주었다. ‘그런 희열을 이번 대회에서도 느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매 경기에 임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모든 이화인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가슴 뛰는 일에 제 청춘을 바쳤고 지금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도 생각만 하지 말고 저처럼 ‘맨땅에 혼당한다’는 각오로 직접 제품을 팔고 실제 뭔가를 해보고 충분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학제 개편은 단과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1996년을 시작으로 모교는 각 단과대학에서 학부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제에 변화가 있었고 신설된 학부 및 학과(전공) 또한 여럿이다. 학부는 기존의 학과보다 광역화된 의미를 가진다. 기획처의 설명에 따르면 단과대학마다 서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전공 분야를 하나의 학부로 묶고 그 밑에 둘 이상의 전공을 두거나 학부 내에 전공제, 트랙제, 모듈 프로그램 등을 두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단과대학마다 학제의 개편과 구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모교를 떠난 동창들은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진 학부 및 학과가 무엇인지, 명칭이나 소속이 변경된 학과가 무엇인지 헷갈리곤 한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명만 알면 되지만, (총)동창회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특성상 기존의 학과명과 새롭게 등장한 학과명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동창수첩에 있는 학과명과 2019년 현재 모교의 각 단과대학별 학부 및 전공명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단과대학들은 명칭과 소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총)동창회 명부에는 과가 있으나 모교 조직에는 없기도 하고 소속 단과대학이 바뀐 경우도 있다. 참고로, (총)동창회는 동창수첩 기준으로 동창회를 구성하고 있다.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 전공이 통합되거나 변경

되고, 서로 다른 단과대학으로 소속이 개편, 이동하는 등의 ‘헤쳐 모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창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겼다. 예를 들면 생활환경대학 동창회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2011년 개편에 따라 몇 개 과는 신입 동창들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상미(가관 82, 가관과 동창회장) 동창은 “현재 동창회에는 기존의 가정관리학과와 신설된 소비자학과가 별도로 존재해요. 과거 생활환경대학의 가정관리학과(특히 아동 및 가족관계 전공)가 지금의 사회과학대학의 소비자학과와 같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라고 설명한다.

또한 2017년 공간·시각·산업·영상디자인 4개 전공을 디자인학부로 통합하여 현재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섬유패션학부 3개의 학부로 운영되고 있는 조형대의 경우는 전공의 통합과 개편이 가장 여러 차례 이루어진 단과대학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신영선(장미 88, 조형대 동창회장) 동창은 “장식미술과는 패션디자인과 공간디자인으로 분리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처럼 장미과로 부르고 있어요. 분리된 해에 입학한 동창들이 졸업 30주년이 되는 해에 장미과를 패션디자인과 공간디자인으로 완전히 분리, 별도로 호칭하기로 내규를 정했어요. 결국은 별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라며 소견을 밝힌다.

그렇다면 (총)동창회에는 학과의 명칭이 바뀌

대학	동창수첩 학과명	2019년 현재 모교 소속 및 명칭	대학	동창수첩 학과명	2019년 현재 모교 소속 및 명칭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조형예술학부 동양화 전공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서양화과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전공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조소과	조형예술학부 조소 전공
	불어불문학과(불어교육과)	불어불문학과		도예과	조형예술학부 도자예술 전공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섬유예술과(자수과)	섬유패션학부 섬유예술전공
	기독교학과	기독교학과		생활미술과(디자인학부의 공간·시각·산업·영상디자인)	디자인학부
	철학과	철학과		장식미술과	섬유패션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 전공
	사학과	사학과		체육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 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체육과(사회체육과)	체육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무용과	음악대학 무용과
	문화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화정보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신문학과, 신방과, 언론총 보영상학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사회복지학과(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공학과(시청각교육과)	교육공학과
	심리학과(교육심리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		사회과교육과(사회생활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과	수학과		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화학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 화학·나노과학전공		융합보건학과 (건강교육과, 보건교육과)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
	생명과학과(생물학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엘텍공과대학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전자계산과)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부
	전자공학과	차세대기술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국제사무학과(비서학과)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환경공학과(환경과학과)	미래사회공학부 환경공학 전공	의과대학	의학과	의과대학/의학과
	건축학부	미래사회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 전공 글로벌건강간호학 전공
	식품공학과	차세대기술공학부 식품공학 전공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과
	피아노과(기악과)	건반기악과		생활환경대학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가사과, 가정과)
음악대학	관현악과	관현악과		의류직물학과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아동 및 가정경제 전공은 폐지)
	성악과	성악과		식품영양학과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과
	작곡과	작곡과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종교음악과	폐지			
	한국음악과	한국음악과			

더라도 두 개의 이름이 공존해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변경된 이름으로 바꿔 불러야 할까? 이는 변화하는 시대 그 과 동창회의 존속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첨예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총)동창회라

는 조직 역시 모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의명분을 기억한다면 장미과의 경우처럼 해당 동창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글·정진숙(행정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최근 편제 개편에 대해서는 모교 홈페이지

<이화소개-이화발자취- 연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총동창회는 동창수첩 기준으로 동창회를 구성하고 있다

노래를 통해 이화의 진선미를 알리다

매년 5월 31일은 '동창의 날'로, 동창회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졸업 3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동창들을 초청하여 재상봉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동창의 날 행사의 백미는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창들은 각 과 별로 모교 이화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동창들에게 신임이 두터운 동기를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한다. '올해의 이화인'은 졸업 후 30년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과를 쌓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신해 온 동창에게 동기들이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다. 과를 대표하여 단 한 명만이 '올해의 이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인 모임 탐방 코너에서 이번 호에 소개 할 이화인 모임은 '이화 아르모니아(Ewha Harmonia)'이다. 그동안 다루었던 동종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화인들의 모임들과는 달리 이 모임은 각 과 '올해의 이화인'들로 구성된 순수한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설립 5년 차인 이화 아르모니아 단원들의 전공은 다양하다. 교수, 교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기업체 임원, 언론인, 화가, 음악가, 공연기획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여성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

음으로 모인 이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익히고,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이러한 행복을 널리 전하며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화 아르모니아의 면면을 알아보고자 단장인 신난식(성악 73) 동창과 총무 최경희(화학 80) 동창, 메조 파트장 이선용(독문 83) 동창, 그리고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이수연(성악 92) 동창을 만났다.

"이화 아르모니아의 역사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시로 만나며 활발히 교류하던 2003년도 '올해의 이화인' 동기들이 합창단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창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해마다 한 기씩 배출되니 단원을 충원하는 데 연속성도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었지요. 우선 지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음대 후배인 이수연 동창을 지휘자로 영입하고 반주자도 섭외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해가 거듭되며 홍보에 힘쓰다 보니 단원이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교의 행사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며 합창단을 설립했던 것은 아니다. 음악을 함께 즐기고자 합창단을 만들었기에 처음에는 무대를 고려하지

는 않았다. 합창을 하다 보니 곡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에도 도전하게 되었고, 국내외 합창제 참가나 해외 공연을 계획하고, 모교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창단 목적이 그다지 거창하지는 않았어요. 합창단은 ‘올해의 이화인’들의 커뮤니티로, 음악을 사랑하며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모인 일종의 동호회였어요. 다만 ‘올해의 이화인’이 모교나 사회를 위해 기여도가 큰 사람들로 구성되기에 이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실제로 이화 아르모니아는 ‘2019년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다. 고운 미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단원들이 부채춤 사위에 맞추어 신명나는 민요 메들리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다양한 무대에서 기량 뽐내

단원 충원에 대해 물었다. 매년 선정된 올해의 이화인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축이 된 멤버는 2003년 올해의 이화인 2명, 2006년과 2009년 각 1명, 2010년 5명이었고, 2013년 7명, 2015년 10명, 2017년 17명, 2018년 2명 등 해마다 단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이화인’ 추대 행사가 끝나면 합창단을 홍보하여 새 단원을 영입한다.

이화 아르모니아는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자랑한다. 단원 중 음대 출신이 많았던지 물어 봤다. “음대 출신은 별로 없어요. 성악과 1명, 피아노과 2명이고 나머지는 전 단과대학의 다양한 학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다들 한몫할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니 그럴 수도 있다며 수긍한다.

합창단 조직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로 구성되어 있고, 단장, 총무, 소프라노 / 메조 소프라노 / 알토 파트장, 회계, 악보장 등의 임원진과 지휘자 이수연·반주자 장진영(피아노 02)·솔리스트 김은경(성악 02) 동창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창단 처음부터 임원진을 구성했어요. 어떤 일이든 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임원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임원진은 기별로 내려가면서 뽑고 있지요. 총회와 같은 장치를 통해 선출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추대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전임 임원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고사하는 사람들은 못하고 유연하게 일을 분담한다고 할까요. 이것은 벼슬이 아니라 봉사니까요.”

이화 아르모니아는 지난 5년간 국내외 각종 합

창제 참가, 정기 연주회, 모교 행사 공연, 소규모 자선 공연, 살롱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왔다.

2019년 제8회 임궁수 가곡의 대향연(롯데콘서트홀), 2018년 코리아합창 페스티벌(롯데콘서트홀), 2017년 세계명곡 페스티벌(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립합창단과 조인 연주) 등 이화 아르모니아는 우리나라 일반 합창제 연합회에 소속되어 국내 유명 합창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왔다. 최근에는 국내 합창제뿐 아니라 해외 합창제에도 출전하여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창단 5주년을 기념하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합창제 'Alta Pusteria International Choir Festival'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화 아르모니아 단원 22명이 참여하며 무반주 종교 음악과 민속 음악 부문 등 규정에 따라 곡을 준비하고 맹렬히 연습하는 중이다. 민속 음악 부문의 민요 메들리 공연을 위해 솔리스트인 김은경 동창의 무용 지도로 부채춤 연습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화 아르모니아는 단독 공연으로 2016년 모교 중강당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내년에는 제2회 정기연주회를 계획 중이다. 그 외에도 2018년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2018 이화가족 성탄예배 등 모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 공연에도 참여하고, 병원 자선 음악회나 소규모 살롱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꾸준한 활동을 벌여 왔다.

모교 공연은 주로 총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합창제 참여 여부는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지휘자의 일정과 임원진의 동의, 단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합한 합창제를 선택한다. 타 기관이나 단체, 모교 등의

지원은 없다. 단원들의 회비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자비로 비용을 지불하며 합창제에 출전한다. 합창제는 단원들의 실력을 쌓는 유용한 수단이다. 합창제 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수준이 대폭 향상된다. 물론 연습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중진으로 활동 중인 단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때문에 공연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년 정도는 앞서 생각해야 한다.

공연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나눈다

이화 아르모니아는 연습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모임을 갖는다. 공연이 임박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모이는 경우도 많다. 연습 장소는 단원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압구정동의 교회 찬양대 연습실을 이용한다. 보통 큰 무대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외 여러 모교 행사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연습곡은 성가곡, 영화음악, 가곡 등 매번 달라져 늘 새로운 곡을 접한다. 곡이 바뀌지 않으면 연습하는 재미가 없다고 한다.

지난 5년을 돌아보니 가장 기억나는 공연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모교 중강당에서 공연한 창단 연주(제1회 정기연주회)를 꼽는다. “2016년 6월 18일이었어요. 가곡, 성가곡, 재미있는 합창곡 등 다양한 곡들을 무대에 올렸어요. 객석의 반응이 뜨거웠지요. 그리고 이번 6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열리는 이탈리아 합창제에 다녀오게 되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르모니아는 ‘하모니’라는 뜻이다. 이수연 지휘자가 이화 아르모니아라는 이름을 지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쉽게 이해되는 고유명사를 선택

한 것이라 한다. 내부에서는 ‘이화인 합창단’이나 정감 있게 ‘행복한 합창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교나 총동창회에서 올해의 이화인 합창단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화 아르모니아가 좀 더 알려지면 모교와 긴밀한 협조 아래 모교나 총동창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이화인들이 계속 우리 합창단에 들어와 단원이 많아지면 지방이나 해외 동창들을 위한 공연을 포함하여 국내외 곳 곳에서 합창을 통해 이화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교와 총동창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단원 중에 총동창회 임원이나 총동창회 후원 이사가 있습니다. 총동창회와 서로 소통하며 모교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화 아르모니아는 채플 찬양 등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단원들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라 오전 공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채플 무대에 설 기회가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귀띔한다.

단원들은 일과 병행하며 합창단을 꾸려나가고 있다. 전문적인 업으로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안고 즐겁게 활동하려 한단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와서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잖아요. 합창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활동은 이것 이 주목적일 수도 있어요. 일하다가 와서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래를 하고 김밥이라도 한 줄

먹고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원들은 음악을 개인적인 취미의 영역에만 가두지 않는다. 끊임 없이 배우고자 노력하며 도전하고, 공연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나누고 봉사하며 삶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올해의 이화인에게 “합창단 들어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시야가 확대된다”는 말



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한다. 자기 일만 하는 것보다 노래도 하고. 특히 내가 모르던 노래도 배우고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며 삶의 국면이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이화 아르모니아는 ‘올해의 이화인’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이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화 아르모니아의 존재 이유는 모임과 활동을 통해 이화인의 맥을 이어가고 이화를 빛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을 것이다. ‘올해의 이화인’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이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이화 아르모니아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식 개최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식이 5월 31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3,000여 명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김혜숙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증하는 요구에 맞춰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폐다고지를 고민하여 이화만의 고유한 인적자원 개발 방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통합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며, 그 속에서 여성 인재들을 키워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전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옥 전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주요기관 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윤규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교사, 모혜연 중어중문학과 교수, 하지연 학적팀과장이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총 98명을 대표해 표장을 받았다.

이어서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중근(영문 67) 동창과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신혜수(영문 72) 동창이 ‘제17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했다. 유중근 동창은 2011년 대한적십자사 최초 여성 총재로 임명되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사에 또 하나의 최초를 기록했다. 1998년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를 맡은 후 꾸준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 특히 4대 취약 계층으로 꼽히는 노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집중적으로 공헌해 왔다. 신혜수 동창은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산 중이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에 힘써왔다. 2011년 한국인 최초로 UN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현재 3선 위원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화학술상’은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신동완 교수와 의과대학 의학과 하은희(의학 87)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이화학술상’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우수교원 포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동완 교수는 다수의 SCI급 논문 게재를 통해 국내 통계학 분야를 교육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주 연구 분야인 시계열분석 연구 수준을 세계적인 반열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은희 교수는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감계층 환경보건 분야에 주목, 국내 최

초로 출생코호트(특정의 기간에 출생한 집단) 구축을 시행함으로써 환경부에서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총장 초청 오찬이 공관에서 열렸다. 참석 귀빈과 이화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오찬에서는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및 ‘이화학술상’ 수상자의 수상 소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한 총동창회에 대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이 진행됐다.

■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 개원하고 본격 진료 시작

이대서울병원(원장 편욱범)이 5월 23일(목)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개원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신인령·이배용·김선옥 전 총장, 최대석 대외부총장, 문병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등 교내 인사와 남상택 총동창회장, 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 한국 최초 여성 의사 박에스터 선생의 조카인 박문화 전 결스카웃연맹 총재를 비롯한 외부 인사, 지역 기관 및 의료계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혜숙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은 높아진 의료 수준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료 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32년 전 보구녀관의 첫 소명을

기억하며 21세기 여성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중단 없는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차별화된 강점과 역량의 강화와 부족한 점 적극 보완을 통해 환자에게 만족과 가치를 제공,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식 후에는 병원 안으로 이동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진행됐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이대서울병원 건립 과정에서 건축 기금을 기부해 준 기부자를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이대서울병원 1층 로비에 만들어졌다.



이대서울병원은 2011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의료시설 용지를 확보, 2015년 착공 후 4년간의 공사 끝에 지하 6층, 지상 10층, 1,014병상 규모로 지난 2월 7일(목) 진료를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기준 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되어,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전용 출구로 연결되며 직선 거리로 김포공항과는 3.3Km, 인천공항과는 36Km 거리에 있어 국내외 환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보구녀관(普救女館)’ 한옥 건물도 병원과 의과대학 사이 부지에 복원해 한국 여성의 술 132년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린다. 보구녀관은 이화학당 설립자인 메리 F. 스크랜튼 여사가 학당을 설립한 다음해인 1887년, 당시의 조선 부녀자들을 위해 세운 여성 전문 병원으로, 의료원은 보구녀관이 시작한 여성 의료 및 간호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74년 역사의 의과대학도 기숙사를 갖춘 최첨단

건물을 병원 바로 옆에 신축한다. 새 의과대학 건물은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자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본명 김점동)를 기려 에스더빌딩으로 명명됐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산하 양 병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가 교육 연구 진료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화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학병원으로서의 연구 역할도 강화하고, 글로벌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연구 협력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 22일(목)에는 의료원과 산학협력단(단장 반효경),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산업거점 산학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 R&D 및 기술사업화 추진과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학술 기술 및 각종 정보 교류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채용 연계 등 여러 사항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 이번 협약을 통해 마곡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산업 거점 산학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모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2019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모교는 2019년 4월부터 4년간 70억을 지원받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소프트웨어 여성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체 수요 맞춤형 여성 인재를 배출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국가, 기업,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을 말한다.

2015년 시작된 본 사업은 4년간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해 2년간 40억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11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9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는 모교를 포함 5개(현재까지 총 3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 선생을 기리며

김영의(음악 29, 1908~1986) 선생 타계 33주년을 맞아 추모 음악회와 추모 예배 및 전시회가 음대 동창회와 모교 음대 주최로 열렸다. 김영의 선생은 이화학당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 미국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유학한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으로, 모교 예술대 학장, 음대 학장, 이화학당 이사장, 대한여학사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음악 분과 문화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 음악의 발전과 이화의 음악 교육에 기여한 인물이다.

‘김영의, 음악으로 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라는 부제로, 5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모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김영의 선생의 사진과 유물(학위기, 상장, 감사패, 훈장, 원고, 저서, 피아노 등) 등이 공개되었다.

5월 22일(수) 오후 6시 열린 추모 예배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윤승현 준비위원장(모교 음대 학장), 임진(작곡 72) 총동창회 감사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서 선생을 기렸다.

이어 7시 모교 김영의홀에서 김영의 선생 추모 음악회 ‘참 아름다워라’가 열렸다.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성기선), 이화챔버콰이어와 모교 음대 합창단(합창 지휘: 박신화)이 참여한 추모 음악회의 첫 순서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모교 음대 교수인 함영립(피아노 80)·계명선(피아노 85) 동창의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Op.56b for Two Pianos(J. Brahms 작곡)〉, 〈참 아름다워라(F.L. Sheppard (D.Goeller 편곡)〉 피아노 연주였다. 이어

가야금 연주자 이수은(한음 02) 동창의 〈밤의 소리(황병기 곡, 조재식 편곡)〉, 모교 음대 교수 신지화(성악 84) 동창의 노래와 정호정(종음 91) 동창의 연주로 〈김영의 회갑 축가(김순애 곡, 이철경 작사)〉가 이어졌고, 신지화 동창과 성악가 김동근의 노래로 〈Requiem Op.48(G.Fauré)〉와 〈주 하나님 치으신 모든 세계(S.K.Hine)〉가 울려 퍼졌다.



음대 동창회장 시절 이 행사를 발의한 임진 동창은 “이화의 큰 스승인 김영의 선생을 재학생 및 젊은 동창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라면서 “윤승현 음대 학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윤금희·홍성희 명예교수 등이 힘을 보태 주었으며 음대 동창회장, 각 과 학과장, 음악연구소장 등으로 이루어진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7월 25일(수) 첫 모임을 갖고 8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5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모교 대강당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김영의 추모 채플’도 진행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사범대학

회장__한은주(특교 79)

이화교육네트워크와 함께 전시회 개최

사범대학 동창회와 이화교육네트워크는 모교 사범대학의 후원을 받아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교육관 B동 김애마홀에서 'Emma 빛 따라 길을 만든다-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제자들 모습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김애마(유아원 사범과 26) 사범대학 초대 학장의 정신을 기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동창들을 소개하여 후배들에게 또 다른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교육행정, 교육연구, 사회교육, 사회운동, 사회복지, 박물관, 종교, 정치, 언론, 저술, 문학, 예술, 바둑, 요리, 방송 분야에서 대표적인 50여 명이 참가하여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가 교육 분야 외에



사범대학 동창회는 김애마 사범대 초대 학장의 정신을 기리는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개막식에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과 홍용희(유교 78) 사범대학 학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다.

약학대학

회장__이미애(약학 79)

화합의 날 행사에 230여 동창들 참가

2월 26일(화) 오후 2시 약대 글로벌실에서 주홍장학회 운영위원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3월 11일(월) 오전 11시 역삼동 루안에서 임원 63명이 참석하여 정기 임원회 및 기 대표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 및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특별 위원회 및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3월 12일(화), 4월 9일(화), 5월 14일(화) 오전 11시에 선교예배를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각각 가졌다. 3월 20일(수) 오후 4시 이대서울병원 C관 7층 부속회의실에서 약대의 이대 서울병원 기부금 약정식이 열렸다.

4월 11일(목) 오후 12시 20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정원노인요양원을 방문하였다. 모두 60여 명의 동창과 공연단이 참석하였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까투리 무용단의 한국 고전무용, 성악, 합주, 약대 합창단의 노래 등으로 흥겨운 분위기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38회 화합의 날 행사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5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대공원 내 '서울동물원 다람쥐광장'에서 제38회 화합의 날 행사를 가졌다. 230여 명 동창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각 기 동창들 소개 및 장기 자랑, 오락

과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월 18일(토) 오후 5시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약대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40회 동창들의 기념식이 열렸다.

과(학부) 순서로 계재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 __ 송동수(74)

정기총회 열고 새 회장 선출

5월 16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7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고,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남형원(73) 동창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회장으로 송동수 동창을 선출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동창들(1969년 졸업)이 장학금을 기부하여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대표 두

명에게 전달하였다. 한살림 연수원 원장인 윤선주(73) 동창의 '우리의 오래된 미래' 강의를 들으며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한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영어영문학과

회장__ 김혜정(72)

봄 아우팅과 영학회의 날 행사

영학회의 2019년 봄 아우팅 장소는 선정릉이었다. 4월 16일(화), 영학회 임원들과 각 기를 대표하는 기간사 40여 명은 세 팀으로 나누어 세 명의 해설사를 따라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 중종의 묘를 탐방하고 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역사 속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강남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요함과 새봄의 푸르름까지 덤으로 만끽한 행복한 하루였다.

5월 28일(화) 11시, 모교 교수, 회장, 고문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엘타워에서 영학회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성혜옥(70) 동창의 기도, 김혜정 회장의 인사말씀과 내빈 소개,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의 축사, 황준호 학과장의 영어영문학과 소식 브리핑에 이어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된 유중근(67)·신해수(72) 동창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최혜원(89) 동창 소개, 그리고 1969년, 1970년, 1989년 졸업 동창의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 이어진 2부에서 김혜숙(76) 모교 총장이 깜짝 등장해 축하의 말을 전하였고 <백설 공주와 오빠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숙자(체육 64) 모교 명예교수의 '다함께 즐겁게' 순서에서는 모두 일어나 신나는 음악에 맞춰 흥겨운 율동으로 몸을 풀었다. 홈커밍기의 공연(Swan Lake, 응답하라 개츠비, 라인댄스)과 가수 남진의 멋진 공연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행운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영학회의 모든 임원이 오랜 시간 고심하여 정성껏 준비했던 영학회의 날 행사를 성



선정릉으로 봄나들이에 나선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_ 유혜영(78)

창립 62주년 총회에서 새 임원진 소개

4월 17일(수) 불어불문학과 창립 62주년을 맞이하여 모교 ECC 아삼봉홀에서 많은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구 임원 교체와 새 임원진 소개도 있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에 유혜영 동창, 부회장 서동민(79)·송기정(80) 동창, 감사 한정숙(75)·이계영(68) 동창, 총무 박문행(83) 동창, 문화부장 장영은(83) 동창, 회우부장 김은숙(84) 동창, 회계 황정일(85) 동창이다.



창립 62주년을 맞이하여 총회를 개최한 불어불문학과 동창회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봉무(72)

으로 이화 진(眞)상을 수상하였다.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로 선후배 만남의 시간
4월 25일(목) 오후 6시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
학재단 영산홀에서 독어독문학과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열렸다.

비가 오는 낮은 날씨에도 졸업 50주년을 맞는 3
회(1969년 졸업) 동창 22명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
창들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3회 동창들은
지나간 학창 시절을 소회하며 기뻐했고, 수십 년
간 장학금 지원으로 후배 사랑을 실천해 온 3회
김정옥(69) 동창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
봉무 회장은 독문과 원어연극반이 공연한 <어떤
소송>을 소개했으며, 이화진(96) 동창은 최근 화
마로 손상된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대한 강의로
참석한 동창들의 지적인 즐거움을 만족시켰다.
올해 졸업한 53회 신입 동창들도 선배들과의 만
남으로 행복한 시간을 즐겼다. 5월 31일(금) 이화
창립 기념일에는 졸업 30주년과 50주년을 맞는
동창들이 제주, 포항, 대구 등지에서 올라와 이화
교정에서 즐거운 나들이를 가졌으며, 독문과 동
창회에서는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였다.

올해의 이화인에는 최민숙(89) 동창이 선정되
었고, 김정옥 동창은 이화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



왼쪽부터 민용자(67) · 김정옥 · 남재은(68) · 이봉무 동창

사학과

회장__한상혜(73)

간사회에서 장학금 수여자 선정 및 승인

3월 28일(목) 서울 원서동 용수산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간사회의 여러 활동 보고와 함께 봄 답사
지 선정과 준비 작업 등의 논의가 있었다.

4월 25일(목) 강원도 강릉으로 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오죽현, 선교장, 허난설향 생가, 굴산사
당간지주, 신복사지 삼층석탑 등을 답사하였다.

5월 23일(목) 서울 북촌에 위치한 한뫼촌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31회 최지영
(89) 동창이 선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2019년 1학기 사학과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학과 2학년 김수완 재학생에게 250만 원 장학
금을 수여하는 전에 대한 간사회의 승인도 이루
어졌다. 이번 간사회에는 11회 이배용(사학 69), 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
원장, 전 이화여대 총장) 동창이 참석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서원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등재 과정 등을 설명해 주어 참석자들은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강릉으로 봄 정기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회

문현정보학과

회장__ 계난경(88)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3월 30일(토) 오전 11시 모교 교육관 B동 김애마홀에서 100여 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했다.

1부 순서로 2018년 감사 보고,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하고, 주요 안건 논의와 신입 동창 소개 및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다. 2부엔 과 소식을 전달하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3부 순서로 맛 있는 점심 식사와 함께 여러 동창들의 후원 물품으로 행운권을 추첨하는 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11월 2일(토)에 예정된 ‘문현정보학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하며 모교 후배들의 면학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60·60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당일 기념행사에서 전달하기로 하였다.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더욱더 참석하고픈 문현정보학과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2019 임원진의 인사말로 정기총회 행사를 마무리 했다.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문현정보학과 동창회

사회복지학과

회장__ 한인영(72)

고 이명홍 명예교수 추모예배

4월 18일(목) 이유림(91) 동창의 서울 YWCA 제29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유림 동창은 오랫동안 YWCA 청소년팀, 시민포럼을 비롯하여 수많은 활동에 기여해 왔다.

5월 20일(월) 대학교회 소예배실에서 고 이명홍(영문 50) 명예교수의 가족, 친지, 제자, 동창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윤재 교목실장의 집도로 예배를 드리며 고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명홍 교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34년간 모교에 재직(1961~1995)하였으며, 4월 10일(수) 미국 시애틀에서 소천하였다.



고 이명홍 명예교수 추모예배 시간을 가진 사회복지학과 동창회

물리학과

회장__ 최은영(87)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수여

5월 31일(금) 국제교육관 1301호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76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기도로 축복을 시작했다. 참석한 신입 동창 7명을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한 후 결산 보고, 사업계



정기총회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회 및 예산 승인, 동창회 활동 영상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물리학과 동창회에서 마련한 장 학금을 재학생 2명에게 수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배가 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를 마무리하며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1969년 졸업생 5명과 30주년의 1989년 졸업생 4명에게 축하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오후에는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식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및 합창제에 함께하였다.

종교음악과

회장 __ 오지영(88)

이화 뮤직페스티벌 종교음악과 연주회

5월 13일(월) 음악대학 김영의홀에서 이화 뮤직



이화 뮤직페스티벌 종교음악과 연주회에 참여한 종교음악과 동창들

페스티벌 종교음악과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오르간 유민주(02) 동창, 오르간·피아노 듀오 최민아(19)·정수연(01) 동창, 독창 이윤정(96) 동창이 참석했고, 이화그레이스콰이어(지휘: 이치복(97), 피아노: 정수연(01), 오르간: 박옥주(95)) 등의 연주로 종교음악과만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올렸다.

동양화과

회장 __ 박정란(86)

채연전, 합창제 등 풍성한 동창 행사

2019년도 우수 졸업 작품 초대전인 비전 이화미술인전에 장한이(19) 동창이 선정되어 각 과에서 선정된 우수 졸업인들과 함께 3월 12일(화)부터 16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동양화과 동문전인 제38회 채연전 ‘화안(畫眼)’이 5월 14일(화)부터 19일(일)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총 75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5일(수) 열린 오픈식엔 원문자(66)·오용길 명예교수, 김귀주(74), 전 녹미회장·정선진(74)·이미연(76)·이은영(78) 전 동창회장 및 김보희(74)·이종목·서은애(93)·이기영·강서경(00) 교수 가 참석하여 동창 선배들과 교수 간의 만남의



채연전에 참석한 동양화과 동창들

장을 겸했다. 제38회 채연상은 김경원(92)·진민옥(03) 동창이 수상하였으며,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양지혜(89)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5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조형예술대학 A관 2층에서 열린 동양화과 3학년 재학생들의 작품 발표회 ‘메이데이전’에서 수고한 후배들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동창회장과 임원진, 교수, 선후배의 박수 속에 감사함과 축하를 나누는 즐거운 자리였다.

5월 31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있었던 합창제에 33명의 조형대 합창단원 중 김귀주·이숙진(85)·김현주(86)·박정란(86)·임미혁(86)·기유경(88)·김연화(88)·김혜정(88)·서근영(88)·이상형(92) 동창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서양화과

회장__채정수(83)

총회에서 신임 임원을 선출

1월 21일(월) 인사동 지리산에서 이사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현 임원과 구 임원들이 함께 모여 이사회 한 해 계획을 이야기했으며, 신임 임원의 인사도 있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채정수 동창, 부회장: 이경희(85) 동창, 총무: 한규호(89)·김길숙(90) 동창, 회계: 박가나(89) 동창, 서기: 조수경(90) 동창.

4월 25일(목) 동창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야유회를 다녀왔다. 강원도 오크밸리 산 뮤지움에 다녀왔으며 약 40명 정도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더 행복한 야유회였다.

이사회에서 주최하는 동창 작업실 탐방 네 번째



산 뮤지움으로 야유회를 다녀온 서양화과 동창회

프로젝트로 박운주(76) 동창의 작업실에 다녀왔다. 동창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눴고, 박운주 동창은 이사회에 애틋한 관심을 표했다.

조소과

회장__나진숙(84)

세미나 열어 동창들의 작품 세계를 공유

이화조각회는 조소과 동창들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이정자(66) 동창의 작품 세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4월 25일(목) 차종례(92) 동창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작품 세계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김순임(02) 동창이 참여한 국내외 레지던시와 공간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개받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비전이화미술인 전시에 조소과에선 이채영(19) 동창이 선정되었다. 또한 5월 21일(화) 조형예술대학 재학생들의 MAY DAY 전시 오픈에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올해의 이화인으로 김선영(89) 동창이 선정되었다.

섬유예술과

회장 __ 박희전(90)

총회 개최와 워크샵

3월 29일(금) 오후 12시 ECC 케세이호 중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임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전 신임 회장의 사회로 신임 임원진 소개, 김은영(92) 선교부장의 기도, 윤순란(89)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연성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과장인 봉지희(85) 동창이 2년 동안 30대 녹미회장으로 봉사하여 동창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도 선후배 동창들이 서로 단합하고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금) 섬유예술과 신·구 임원진이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표 이사인 박신정(조소 85) 동창이 직접 임원들을 맞아주었다. 박신정 동창이 특별히 도슨트를 해주

는 동안 우연히 강릉 저희 동창들(1972년 졸업)을 만나 함께 설명을 들었다. 키네틱 아트 작품과 설치미술, 해안 절벽 위에 조성된 자연 속의 예술정원과 조각 작품 등을 감상했다. 하슬라 아트월드의 투어를 통해 작품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 워크숍이었고, 섬유예술과 동창뿐 아니라 조형예술대학 동창, 더 나아가 이화동창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생활미술과

회장 __ 김곡미(87)

스승과 함께하는 뜨개 클래스 열어

4월 27일(토)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는 이영희 스승과 함께 제2회 뜨개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화정박물관에서 진행된 뜨개 클래스는, 선후배가 함께 배우며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화정박물관의 티베트 불교미술-탕카의 세계와 유럽 약국의 예술-약항아리 전시, 인상적인 춘화 전시를 보며 디자인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다.

5월 31일(금)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생활미술과에서는 김수정(89)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었다.



섬유예술과 동창회 총회



제2회 뜨개 클래스에 참석한 생활미술과 동창들

장식미술과

회장__장남경(91)

동창의 밤 행사 및 영국 UAL과 MOU체결

장식미술과 공간디자인전공은 5월 10일(금) 모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동창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올해 동창의 밤 행사 주제는 'QUEEN OF QUEENS'로 드레스 코드는 핑크였으며, 행사장 역시 핑크를 메인 컬러로 하여 멋있는 공간 연출이 이루어졌다.

동창회에서 매년 2명에게 수여하는 '이화장미 글로벌 장학금'으로 한 달여간의 유럽 연수를 다녀온 16학번 서보슬·이해린 재학생의 유럽 연수 발표 시간이 있었다. 또한 '이대의 EXO'라고 불리는 남성 교수 중창단의 공연, 베스트 드레서 선정과, 푸짐한 경품 행사 등으로 언제나와 같이 두 손과 마음이 풍족해진 시간을 가졌다.

영국 런던의 예술종합대학교 UAL과 패션디자



(위) 공간디자인 전공 동문의 밤 행사
(아래) 메이데이 전에 참석한 패션디자인 전공 동창들

인천공이 국제교류 활성화와 학생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을 축하하였다. UAL은 영국 런던의 아트, 디자인,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공연예술 분야 칼리지가 연합체로 구성된 종합예술대학이다.

2018년도 패션디자인 전공 윤다정(19) 동창의 작품이 'VISION 이화미술인전'에 선정되어 3월 12일(화)부터 16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전시하였다.

패션디자인전공 3학년 학생들의 메이데이전이 모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5월 28일(화)부터 6월 2일(일)까지 6일간 열려 동창회에서 축하하였다.

도예과

회장__김미경(87)

경덕진 대학 초청으로 포럼 참가

도자예술전공 김미경(도예 87) 교수 이하 대학원 학생들은 경덕진 대학의 초청을 받아 5월 2일(목)부터 7일(화)까지 열린 2019 경덕진 포럼 '세계 각지에서 말한다—예술과 생활'에 참여하였다. 김미경 교수와 학생들은 경덕진 도자대학을 탐방하고 전시 및 페어에 참가하였다.

도예연구소는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5월 14일(금) 모교 조형예술관 A동 524호에서 '공예 속 도예, 도예 속 공예'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도림회에서는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2019년도 장학생으로 이소영(15)·신다인(16) 동창이 선발되었다.

도예과 동창회 전시회인 2019 도림전 'The Good Day'가 6월 4일(화)부터 8일(토)까지 모교 조형예



도예연구소 설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 중인 김미경 소장

술관 A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의 은혜 합창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환(교육 55)·이은화(59)·이기숙(72) 은사가 덕담을, 현직 교수를 대표하여 홍용희(78) 교수가 동창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피아노 5중주 '클레프아츠(Clef Arts)'를 초청하여 연주를 감상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은사의 추천 동요〈파란마음 하얀마음〉, 〈산바람 강바람〉을 합창하였고 흥겨운 앵콜곡 〈하나베라〉 연주 후에는 학창 시절 율동시간에 왈츠를 배웠던 이야기로 추억을 나누었다.

유아교육과

회장__유청옥(88)

스승의 날 행사

5월 11일(토)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퇴직 은사와 현직 교수를 초청해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졸업 30주년을 맞는 1989년 졸업 동창들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김용희(89) 동창을 비롯하여 전·현직 동창회 임원과 유아교육, 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이 참석하였고,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1부는 박희경(89) 부회장의 사회와 안영주(88)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유청옥(88) 회장의 감사 인사, 선물 증정 및 축하 케이크 커팅, 스승

교육공학과

회장__양영선(81)

김애마홀에서 동창회 모임

5월 18일(토) 모교 교육관 B동 김애마홀에서 교육공학과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교육공학과



스승의 날 행사를 마련하고 사제 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낸 유아교육학과 동창회

특수교육과

회장__명경미(82)

동창의 밤 및 총회 개최

2월 19일(화) 화요일 오후 5시 모교 ECC 이삼봉



동창의 밤 및 총회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홀에서 특수교육과 동창의 밤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총회에서는 감사 보고와 회계 및 사업 보고가 이루어졌고, 특수교육과 동창회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새 회장에는 명경미 동창이 선출되어 향후 2년간 특수교육과 동창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2부에서는 신입 동창 환영과 더불어 특수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성 재학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2부 행사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 및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제사무학과 동창들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성휘 신임 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식품영양학과

회장__정조인(83)

재상봉 동창들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

식품영양학과는 5월 31일(금) 모교에서 열린 ‘동창의 날’ 행사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졸업 50주년과 30주년을 맞은 동창생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50주년을 맞는 김안수(69) 동창을 비롯한 20여 동기들이 참석하였다. 졸업 30주년 동창 가운데 조우균(89)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동기를 비롯한 주위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식품영양학과 동창들

국제사무학과

회장__정성휘(88)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4월 20일(토)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동창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로 동창과 역대 회장, 현직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1부 정기총회 시간에는 정성휘 동창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지난 회계를 결산하였다. 또한 신입 동창을 환영하고 학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2부 행사는 와인 클래스,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되어 동창 회원들의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이보경(생미 80)

오렌지카운티 수도국 견학

남가주 지회에서는 '이화인을 위한 강좌' 3월 프로그램으로 '오렌지카운티 수도국' 견학을 다녀 왔다. 오렌지카운티 수도국은 최첨단의 정수 시스 텁과 최고의 수질로 국제대상을 받은 곳이다. 수도국 연구소장으로 재임 중인 한국인 유이종 디렉 터의 안내로 견학을 마친 동창들은 수돗물을 신뢰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4월 13일(토) 하비머드 대학에서 열린 KSEA(재 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관 전국수학과학 경시

대회에서 작년에 이 어 '이화여대상' 을 시상하였다. 올해는 4학년에서 11학년 중 우수한 성적의 여학생 8명을 선정 해 시상했는데, 시 상은 회장을 대신하 여 남궁봉일(체육 81) 남가주 지회 부 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California



오렌지카운티 수도국 견학을 다녀온 남가주 지회 동창들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지리학과 교수인 반효원(사회과교육 99) 동창은 세미나에서 발표 하였고, 정현숙(체육 87) 총무와 최경실(특교 89) 서기는 종일 이대 부스를 지키며 수고하여 세 명의 동창들을 새로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가주 녹미회(회장 서정숙(생미 79))는 SFS Art Festival에 초대되어 5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매해 수백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이 성대한 Art Festival에 녹미회가 초대된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의 우수성과 행사 진행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32지구 상·하원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해 이화의 자긍심을 한 번 더 경험하였다.

남가주 녹미회는 조형예술대학 강애란(서양 83) 학장의 초대로 9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모교 초대 전시를 개최한다. 오프닝 리셉션은 9월 17일(화) 오후 5시이다.

덴버 지회

회장 __ 백홍자(조소 80)

부부 동반 피크닉으로 신나는 하루

덴버 지회 피크닉이 Cherry Creek Reservoir에서



동창들과 피크닉으로 하루를 즐긴 덴버 지회 동창들

열렸다. 부부 동반으로 간단한 게임과 유쾌한 수다, 불고기 파티로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모임의 평균 연령이 70대로 젊은 이화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근황을 공유하며 소중한 시간을 나눈 멜버른 지회 동창들

모여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하였다.

멜버른 지회

회장__신은미(사회 99)

2019년 지회 첫 모임 열어

4월 6일(토) Nunawading에 위치한 Miss Korea Restaurant에서 2019년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김명희(가정 66) 동창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후배들은 꽃다발과 선물로 지난 수년간 동창 모임을 활발히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경자(동양 63) 동창은 오랜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처음 참석한 윤숙경(간호 76) 동창이 유화에 대한 열정과 그간의 작품을 공유하자, 정혜원(영문 79) 동창이 자신의 최근 ICON Painting 작품 활동을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안수산(영문 84) 동창은 최근 급변하는 호주 부동산 시장과 정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동창들은 다음 모임 때는 더욱 많은 동창들이

베이징 지회

회장__강미경(생미 88)

2019년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5월 15일(수) 15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미중(사학 85) 회장의 이임 및 신임 회장 선출이 있었다. 신임 회장으로는 강미경 동창이 선출되었다.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진행 예정인 아시아 지부 동창 모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아시아 지부 동창 모임에는 베이징을 비롯한 상하이, 일본, 싱가포르, 홍콩 지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이화 커뮤니티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제9회 청소년 국제 미술교류전'에 참석한 베이징 지회 동창들

또한 이정선(서양 87) 동창이 주최하는 '제9회 청소년 국제 미술교류전'의 개최를 다 함께 축하했다. 5월 18일(토) 진행된 해당 전시에는 베이징 및 중국 내 타 지역의 동창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정림 동창의 집에서 신년 모임을 한 보스턴 지회 동창들

보스턴 지회

회장 __ 김지영(교육 82)

긴 겨울을 지나 초봄에 다시 만난 동창들

3월 초에 예정되었던 신년 모임이 날씨로 연기되어 4월 6일(토) 강정림(교육 85) 동창 집에서 모였다. 27명의 동창들과 가족들이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만났다.

이혜원(약학 70) 이사장의 사회로 2019년 이사회를 갖고, 이어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원진은 김지영 회장, 신은경(법학 88) 부회장, 강정림 회계, 유인성(의직 75) 섭외부장이 연임되었다.

지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박영복(영문 61) 고문이 캘리포니아의 딸 곁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박 고문은 학창 시절 장학금을 받은 감사함을 잊지 않고, 모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기금을 마련하여 동창들에게 모교 사랑을 행하는 귀감이 되었다.

한편 장종인(영문 02) 동창이 이 지역에 대학교 수로 오게 되어 가족과 함께 첫 방문을 해주어 동창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산해진미의 만찬 후, 국제재단을 통한 보스턴 지회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4명)의 감사카드를 읽는 시간을 가졌다.

신은경 부회장이 진행한 교가 퀴즈대회를 통해 1절에서 3절까지의 학교 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게 되었다.

그 후 이길자(의학 66) 이사의 인도로 가곡을 불렀다. 동창들이 만들어 내는 화음들이 무척 아름다웠다.

2019년 새 주소록이 배부되었다. 주소 마지막 부분에 광고란을 만들어서 동창회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하였다. 보스턴 지회에서는 연회비와 이사비, 그리고 바자회를 통한 후원금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볼티모어 지회

회장 __ 강성려(심리 67)

정기총회 열고 새 임원진 구성

5월 4일(토)에 엘리콧시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볼티모어 지회 동창들

새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회장에 강성려 동창, 부회장에 이진숙(식영 70) 동창, 총무에 박은선(법학 82) 동창, 재무에 이영희(약학 63)·지명희(제약 71) 동창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강성려 신임 회장은 “앞으로 동창회가 선후배 간 우애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곽정연(독문 76)

정기총회에 동창 38명 참석

3월 9일(토) San Jose에 위치한 한식당 '신장'에서 38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순진(의직 80) 부회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곽정연 회장의 개회선언과 교가 합창이 이어졌다. 그리고 박옥희(약학 51) 동창의 개회기도 후 곽정연 회장의 인사, 서기 한순희(교공 68) 동창의 전 회의록 낭독과 총무 이아람(관현 94) 동창의 업무 보고, 박숙자(약학 64) 동창의 회계 보고가 있었다. 3월 생일 동창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4월 6일(토) Hillsborough의 곽정연 회장 집에서 26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4월 생일 동창들을 축하하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지 사항으로 '샌프란시스코 동창 합창단'의 연습 요일과 장소를 공지하였다(1,3주 화요일: 새누리 침례교회, 2,4주 화요일: 뉴라이프 교회).

석화자(교육 60) 동창이 이화동창골프반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어 인사를 하였다. 강희식(사복 61) 동창이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에서 'Honorable Award'를 수상한 소



북가주 지회는 38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식을 전하여 모든 동창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5월 4일(토) Newark에 위치한 일식당 'Nijo Castle'에서 16명의 동창들과 함께 오붓한 정기 모임이 있었다. 5월 생일을 맞은 동창을 축하하는 노래를 시작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북텍사스 지회

회장_윤경원(성악 85)

장학기금 마련 위한 빈티지 마켓

북텍사스 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화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3월 25일(월) Carrollton에 위치한 K.Jenny Boutique에서 '빈티지 마켓'을 열었다. 작년에 글로벌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에세이를 통해 선정된 초, 중, 고 한인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던 것에 이어, 올해에는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북텍사스 지회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한인 여성들의 자녀 6명을 선발하여 5월 31일(금) ‘이화 메이데이 행사’를 통해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가을에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로 더욱더 분주해진 북텍사스 지회 동창들은 ‘2020 MEGA(Make Ewha Glorious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날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시애틀 지회

회장 __ 신경림(장미 80)

이화의 인연을 소중히 하며

4월 13일(토) 이지숙(화학 62) 동창의 배려로 Northbend에 있는 별장에서 메밀 수제비 점심과 저녁 만찬을 나누며 모임을 진행하였다. 조연자(기악 66) 동창의 오렌지 스낵이 히트여서 같이 레서피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 리다 김(김성여(과교 83)) 동창의 지도로 율동을 겸한 가벼운 운동까지 마치니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 되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귀가하였다. 조연자·박정혜(체육 71)·신경림(장미 80)·이혜령(약학 85)·이혜연(국문 02)·리다 김 동창들이 참석하여 오붓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혜영(영문 73) 동창의 딸과 신은희(도예 83) 동창의 아들 한규성 군이 가족과 친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유명순(영문 76) 동창의 둘째 딸이 하버드 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득남의 기쁨도 갖게 되었다.

이명홍(영문 50) 동창의 소천 소식과 남순자(문정 63) 동창이 강도의 충격으로 별세한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다. 조승희(교육 65) 동창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시애틀 지회는 각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을 기리는 시간에 동참했다.

시애틀 지회의 골프반은 매주 월요일 골프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합창반은 백신자(영문 64) 동창의 집에 11명의 대원이 모여 10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대만찬에서 부를 곡들을 이해연(기악 71) 동창의 반주로 즐겁게 연습했다. 사진반은 5월 12일(일)에 이주숙(제약 78) 동창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10월 총회 때 전시회를 갖고자 열심히 준비 중이다. 이화사위 중창단은 4월 11일(목) 박정혜 동창의 집에서 총회 연주를 위한 모임과 함께 연습 후 즐거운 만찬을 가졌다.



백신자 동창의 집에서 총회 준비 모임을 한 시애틀 지회 합창반 동창들

영국 지회

회장 __ 한진경(장미 92)

회장단 5명에 대한 재신임, 만장일치로 가결

봄의 향기가 무르익어 가는 5월 13일(월), 런던 해머스미스에 위치한 한인식당 요시스시에서 모임을 가졌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현재 회장단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순서로 시작이 되었는데,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한진경 회장과 홍시내(커미부 02) 총무 그리고 세 명의 이사들, 정미령(교육 66)·이용선(제약 73)·김인성(영문



회장단 재신임을 가결한 영국 지회 동창들

80) 동창은 앞으로 3년간 다시 수고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3년과 앞으로의 3년에 모두 박수를 보냈다. 영국 지회 동창들의 활동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예술가 강순열(가관 77) 동창의 전시회와 세라믹 조각가 음은경(조소 82) 동창의 조각 전시회가 템스 강변에 위치한 멋진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전혜정(무용 90) 동창의 활발한 영화제 활동으로, 런던 시내 National Gallery에서 4월 27일(토)에 <취화선>을 단체로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통음악가 성초롱(한음 10) 동창은 최근 Oxford University 세계음악 프로그램에 초빙되어 가야금 연주를 했다. 남경화(국문 98) 동창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여 유럽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동창회에 직접 생산한 와인을 기부해서 참석자들이 시음을 할 수 있었다.

2019년 봄, 영국 지회의 톱 뉴스는 아무래도 이대학보사의 영국 방문 취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대학보사 배세정·김미지 기자가 특별기획으로 영국까지 찾아와 영국에서 활동 중인 강순열·전혜정 동창과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토론 문화와 튜토리얼 수업 방법을 취재했다. 원래 비공개 수업인데, 대선배 정미령 동창의 ‘빼’으로 참관을 할 수 있었다.

오타와 지회

회장__박진희(생명 88)

조찬 모임으로 동창의 환갑 축하

3월 2일(토)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난 한은신(수학 78) 동창의 환갑을 축하하며 식당 브로드웨이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 동창회에선 꽃다발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고, 한 동문은 기뻐하며 그날의 모든 식사를 제공했다. 5월 5일(일)에 총회를 갖고 박진희 동창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은신 동창의 환갑 축하 조찬모임을 가진 오타와 지회

워싱턴DC 지회

회장__회장 조은희(경제 91)

‘Pretty in Pink’ 춘계 야유회

5월 11일(토) 버지니아 Lake Fairfax Park에서 춘계 야유회를 개최했다. 화창한 봄 날씨 속에 60여 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참여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야유회는 ‘Pretty in Pink’라는 주제로 동창들 전원이 핑크색 옷과 액세서리로 한껏 치장하고 참여해 핑크 패션쇼로 동창들 간의 화합과 단결력을 높였다.

서로를 소개하고 칭찬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춘계 야유회를 개최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인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팀 빌딩 게임, 양파링 전달하기 게임 등으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고, 이화의 사위들이 준비해준 바비큐와 피크닉 음식들을 함께 즐겼다.

1956년도 졸업생부터 현지에서 인턴십으로 방문 중인 재학생들까지 6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동창들 모두 핑크빛 여대생들로 돌아가 화사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문성애(생미 81)

유익한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3월 27일(수) The Cleveland Museum of Art의 Provenance에서 모임을 가졌다. 식사 후 임수아 큐레이터가 새로 로테이션한 한국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비록 모인 숫자는 적었지만 자랑스러운 한국 예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4월 20일(토) 윤정분(의직 69) 동창 집에서 이지연(법학 65)·전민자(약학 67)·이선희(심리 70)·양인석(영문 72)·인명숙(약학 73)·문성애(생미 81)·노희용(약학 82)·한정심(수학 83)·박경(약학 84)·전희선(의학 88) 동창이 모였다. 윤정분 동창이 직접 만든 빈대떡, 윤 동창의 남편이 직접 pick up 해 준 일식 초밥과 사시미는 기가 막하게 맛이 있었

다. 이지연 동창의 수술 경험 간증은 주님의 무한한 축복을 생각해 보게 했다. 다섯 달 만에 참석한 전민자 동창과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윤정분 동창이 준비한 복주머니도 잊고 말았다. 인명숙 동창의『안나 카레니나』독후감은 1800년대 러시아 사회를 우리 현실과 비교, 조명하는 기회를 주었다. 동창들은 추천 독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원하는 책들을 돌아가며 읽기로 했다.

5월 29일(수) West Side Lagacy Village의 Wild Mango에서 오붓하게 7명의 동창들이 모였다. 얼마 전 할머니가 된 노희용 동창을 부러워하며 아기 사진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의료계에 관련된 동창들이 많아서 건강에 관한 좋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Baldwin Wallace University에 이화에서 두 명의 교환 학생이 온다는 소식이 있다. 10월에 한정심 동창 주관으로 교환 학생들과 Ewha Luncheon을 계획하고 있다.



윤정분 동창 집에서 모임을 가진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포틀랜드 지회

회장__김미진(도예 79)

사회에 활력소가 되는 동창회 다짐

메이데이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은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한자리에 모인 포틀랜드 지회 동창들

새 동창이 5명이나 참석하였다. 김학음(영문 56) 동창을 비롯 박경희(사회 72)·조은미(기악 82)·유진경(서양 85)·김정수(사대 89) 동창이 참석했다. 김미진 동창이 김학음 동창에게 “제가 태어나기 도 전에 졸업하셨네요”해서 웃음바다가 되었다.

새로 참석한 동창들은 누군가의 학과 선후배이거나 이민 동기이거나 해서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한 분위기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최민희(화학 63) 동창은 유머 한마디 읽어 주며 모두가 많이 웃으며 건강하자 하였고, 이어 김미진 동창이 친구가 많은 게 장수의 비결이란 걸 강조하면서 10월에 있는 시애틀 총회에 많이 참석하자고 하였다. 또한 12월 연말 모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약속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동창들은 앞으로 더 활기찬 동창회로, 사회에 혜력소가 되는 동창회로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휴스턴 지회

회장 __ 구희경(사회과교육 86)

장학기금 마련 위한 걷기대회

3월에 휴스턴 지회 동창들은 14에이커에 달하는 정원인 Bayou Bend Azalea Trail에 다녀왔다. Ima

Hogg(1882~1975)가 Museum of Fine Arts, Houston에 기부한 정원으로, Art History 석사 학위를 받은 백은경(사회과교육 92) 동창이 도슨트로 수고해 주어 더욱 알찬 시간을 가졌다.

4월에는 장학기금 Fundraising을 위해 Ewha Walk-Houston을 개최했다. 후원금을 모금하여 남부텍사스 한인 학생들과 모교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행사가 토요일이라 그간 주중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창들, 동창의 생후 1개월 된 아기, 이화사위들도 함께 모였다. 둘, 셋, 짹을 지어 약 4마일을 쉬지 않고 걸었던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5월에는 남부텍사스 지역의 여학생 두 명에게 각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Haemin Ju(현재 Texas A&M 2학년, Science 전공) · Connie Lee(현재 Memorial 고등학교 12학년, University of Texa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입학 예정) 학생이다.

휴스턴 지회의 중점 사업인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힘을 모으는 휴스턴 지회의 동창들일 것이다. 6월부터 8월까지 하계 방학 중에는 동창 모임이 없으며, 새 학기에 시작되는 9월에 다시 만날 예정이다.



Ewha Walk_Houston 행사를 개최한 휴스턴 지회

신금례(미술 49)·김경은(동양 66)·이명순(교공 73)·김효정(서양 77)·박인옥(서양 85)·신미선(서양 85)·유은자(서양 85)·이미란(서양 85)·이혜영(서양 85)·윤경(서양 86)·이경애(서양 86)·심연(서양 87)·이미경(서양 87)·김민성(동양 88)·박가나(서양 89)·한여옥(서양 89)·이오성(동양 02)·정두옥 동창
이화기독미술인회(ECCA)의 제5회 마르투스 100호전이 5월 24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위치한 밀알미술관에서 열렸다. 마르투스 100호전은 매년 성경에서 발췌한 말씀을 10개월을 묵상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경순(미술 50) 동창

원로화가 이경순 동창이 서울 강남 압구정로 갤러리오에서 5월 30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데코룸, 밀고 당기는 꽃의 리듬’을 타이틀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경순 동창

정연희(국문 58) 동창

정연희 동창이 『고려의 혼(신아출판사)』, 『정연희 소설선집(신아출판사)』 등을 출간하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임숙자 동창

임숙자(가정 64) 동창

모교 명예교수 임숙자 동창이 제25대 3·1여성동지회 회장으로 유임됐다. 임 동창은 4월 25일(목)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항일 운동 100

주년과 3·1정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주관했다.

김매자(체육 66) 동창

‘한국 창작무용의 대모’ 창무예술원 원장 김매자 동창이 4월 10일(수)부터 21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제33회 한국무용제전에서 1985년 미국 뉴욕에서 초연한 〈땅에 사람〉을 다시 선보였다.



김매자 동창

천양희(국문 66) 동창

천양희 동창이 2017년 대한민국예술원의 평생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최병화(체육 66) 동창

2018년 10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성북동 작은갤러리에서 패브릭 전시회를 열었고, 2019년 3월 성북로 47-1에 ‘여행가의 집(The Little Museum)’을 오픈하였다. 최 동창은 190여 개국을 배낭여행 하는 여행가이다



최병화 동창

조광향(가정 67) 동창

5월 1일 조광향 동창이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동창은 한국여성유권자광주연맹 회장,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광향 동창

고 김옥지(생미 68) 동창

40여 년간 빛과 생명을 화폭에 담아온 고 김옥지 동창의 추모회고 전시 '빛과 생명 전'이 이화아트 센터에서 4월 23일(화)부터 5월 4일(토)까지 열렸다.

이정은(서양 70)·김주희(서양 72)·장주월(생미 72)·박승려(생미 73)·서은주(생미 73)·권태희(서양 80)·류시숙(서양 82)·이영미(서양, 82)·이정원(조소 89)·이안민지(회화·판화 06) 동창
대구 소나무 갤러리에서 4월 12일(금)부터 19일(금)까지 제12회 녹미전을 열었다. 녹미회는 모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그림, 조각, 도예, 민화, 사진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양수화(종음 71) 동창

글로리아 오페라단 단장인 양수화 동창이 제10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및 글로리아오페라단 28주년 기념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5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양수화 동창

김명희(국문 74) 동창

그림책 「하회탈쓰고 둉실」이 '어린이출판협의회 새학기 추천도서', '2019년 아침독서 추천도서', '2019 북토큰 지원사업 도서' 등에 선정되었다.

이미재(섬예 74) 동창

청주대 명예교수 이미재 동창이 'Life Is The Time Like Water Chosen By Chance And Opportunity'라는 주제로 30 번째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오스트리아 라우라스 시 주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라우리스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재 동창

신성숙(제약 76) 동창

신성숙 동창이 대한약사회 신임 부의장에 선임되었다. 신 동창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과 윤리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신성숙 동창

전영옥(제약 76) 동창

신임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에 전영옥 동창이 선임되었다. 전 동창은 성북구약사회 재선 회장이다.



전영옥 동창

황은미(국제사무 77) 동창

커리어컨설팅협회 회장인 황은미 동창이 2월 22일(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황은미 동창

정현숙(서양 78) 동창

4월 17일(수)부터 30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갤러리에서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정현숙 동창은 대진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현숙 동창

김영란(조소 79) 동창

김영란 동창이 (사)한국조각가협회가 운영하는 갤러리 코사스페이스(종로구 관훈동 37번지)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영란 동창

김혜연(제약 80) 동창

김혜연 동창이 우리들제약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김 동창은 대화제약 개발본부장, 우리들제약 개발본부장을 역임했다.

차영순(섬예 80)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차영순 동창이 3월 1일(금)부터 4월 28일(일)까지 벨기에 Tournai, TAMAT 미술관에서 Asia Europe IV 초대 전을 가졌다.



차영순 동창

의 달 기념식에서 ‘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한 함인희 동창이 녹조근조 훈장을 받았다.

안혜연(수학 81) 동창

안혜연 동창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신임 소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안 동창은 작년 12월부터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모교 사이버보안공 겸임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이봉훈(생미 81) 동창

이봉훈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화정박물관이 ‘유럽 약국의 예술, 약항아리 전’을 3월 21일(목)부터 8월 18일(일)까지 전시한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근세 유럽의 다양한 약항아리를 선보이는 특별전이다.

함인희(사회 81) 동창

5월 10일(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9 가정

정혜진(무용 82) 동창

서울시무용단 신임 단장인 정혜진 동창이 첫 안무작 창작무용극 ‘놋-N.O.T’를 5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연하였다.



정혜진 동창

김경효(의학 83) 동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효 동창이 5월 19일(일) 아시아소아감염학회의 제10회 아시아소아감염학술 대회(ACPID 2020) 회장에 취임했다.



김경효 동창

박병희(약학 84) 동창

박병희 동창이 6월 15일(토) 3시에 여의도 영산아트홀 2019 가톨릭대 대학원 동문연주회에서 파



박병희 동창

고 이희호(문과 44) 동창 별세



이희호 동창

대한민국 여성 운동가로서 큰 족적을 남긴 이희호 동창이 향년 97세의 일기로 6월 10일(월) 별세했다.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1세대 여성운동가인 고 이희호 동창은 1950년 대한여자청년단 결성과 1952년 여성 문제연구원(현 여성문제연구회) 창립에 앞장섰으며, 1962년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하면서 민주화운동 동지로서도 함께했다.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영부인이 됐으며, 2009년에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썼다. 고 이희호 동창은 1944년 이화여전 문과를 졸업한 이후 1958년 모교 사회사업과(현 사회복지학과) 강사를 맡아 모교와 인연을 맺었으며 1998~2016년 총동창회 후원이사를 역임했다. 고 이희호 동창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염수되었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프오르간을 연주하였다. 박병희 동창은 분당요한대성당 오르가ニ스트로서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희(의학 84) 동창

모교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희 동창이 이끄는 공동연구 팀의 연구 논문 「사멸된 암세포에 의한 대식세포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암 진화 및 전이 억제 효과 발견」이 세계적 국제학술지 《세포 및 분자 면역학(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온라인판에 3월 6일(수)자로 게재 됐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지희 동창

정경혜(제약 84) 동창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정동창이 대한약사회 학술이사에 선임됐다. 정동창은 약학 교육 정책 및 연수교육 강화 방안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경혜 동창

박희영(정외 85) 동창

박희영 동창이 5월 23일(목)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발전공로대상'을 수상하였다.



박희영 동창

신경섭(의직 85) 동창

웨딩업체 '신시아' 대표이사 신경섭 동창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은 1월 15일(화) 서울 종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신경섭 동창

유정미(생미 85) 동창

유정미 동창이 대표로 있는 이유 출판에서 그림 책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빵빵빵!」을 출판하였다.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합쳐서 깜짝 놀랄 만한 빵을 만드는 맛있는 이야기이다.

이선주(성악 85) 동창

이선주 동창이 갤러리 나우 작가상 'New & Now Exhibition' 부문 작가로 선정되어 5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소재 갤러리 나우에서 'Musical Silence' 전시회를 열었다.



이선주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Exhibit, Outrigger Guam Beach Resort, Tumon, Guam에서 3월에 'Chamorro Culture Through Your Arts' 그룹전을 하였다. 또한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Guam, Mangilao, Guam 후원으로 'Boundaries, Balance, and Behaviors' 전을 Isla Center에서 열었다. '14th Annual Women's Art Show' 를 Nissan Infiniti Art Gallery에서 3월에 2주 동안 열었으며, 'Guam GAX', the Guam Art exhibition, 'Pow! Wow!' Celebrating Group 전을 4월에 The Plaza Shopping Center, Tumon, Guam에서 가졌다.



남연숙 동창

김신자(서양 86)·김애란(서양 86)·박영은(서양 86)·변해정(서양 86) 동창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4명의 동창이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5월 26일(일)까지 단체전을 열었다. '오월의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전주 시민들과 미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곡미(생미 87) 동창

4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국민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곡미 동창이 최우수논문상(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다. 논문 제목은 「전통 문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과 상품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김곡미 동창

박신숙(서양 87) 동창

2월 28일(목)부터 3월 10일(일) 까지 금호미술관에서, 4월 29일(월)부터 5월 5일(일)까지 스위스 SON'S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신숙 동창

양정숙(법학 87) 동창

5월 13일(월) 셀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개최된 이화법조 인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에서 법무법인 서



양정숙 동창

울중앙 변호사 양정숙 동창이 제5대 회장에 취임 했다.

하은희(의학 87)·천은미(의학 90) 동창

하은희 동창이 제 15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 동창은 국내 최초로 모교 산부인과와 연계한



하은희·천은미 동창

출생코호트(특정 기간에 출생한 집단) 구축을 했다. 시상식은 5월 31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또한 하은희·천은미 동창 연구팀의 논문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의 예방 효과」가 3월 12일(화) 미국의학협회의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김선정(서양 88) 동창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인 김선정 동창이 제58회 베니스 비엔날



김선정 동창

이화언론인클럽

신임 회장에 이규원(교육 87) 동창

이화언론인클럽은 신임 회장으로 KBS 아나운서 겸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겸임교수인 이규원 동창이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부회장은 김윤덕(정외 92) 《조선일보》문화부장, 홍소연(교육 97) KBS 아나운서, 박혜수(조소 97) 《코스모폴리탄》 편집장이 맡는다.



이규원 동창

이화언론인상에 김희정(컴공 85)·임우선(정외 06) 동창

이화언론인클럽은 제19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KBS 연구위원 김희정 동창과 동아일보 기자 임우선 동창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5월 9일(목) 서울 이대서울병원 컨벤션홀에서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와 함께 열렸다.



김희정 동창

임우선 동창

례 심사위원 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돼 참가국 전시관과 작가를 심사한다. 김 동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다

김은영(조소 88) 동창

김은영 동창이 대표로 있는 셀로아트가 갤러리를 이전하고 새롭게 단장하였다(청담동 118-17 네이처포엠B 112호). 셀로아트는 매년 Seloarts Space와 외부 공간에서 Young Artists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영 동창

표명희(독문 88) 동창

소설가 표명희 동창이 장편소설『어느 날 난민』(창비)으로 권정생아린이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0회 권정생문학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5월 17일(금) 경북 안동에 있는 권정생동화나라에서 권정생 12주기 추모식에 이어 열렸다.

호해란(조소 88)·김양선(조소 94)·박효진(조소 98) 동창

5월 16일(목)부터 20일(월)까지 프랑스 아트 페어 Le SM' ART에 참가하였다.



왼쪽부터 박효진·호해란·김양선 동창



김선영 동창

김선영(조소 89) 동창

5월 6일(월)부터 6월 12일(수)까지 스위스 SON'S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정연(조소 89) 동창

4월 15일(월)부터 5월 12일(일)까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H4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정연 동창

박가나(서양 89) 동창

3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가나 동창

이정원(조소 89) 동창

4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용인 포은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정원 동창

송희경(동양 90) 동창

갤러리현대와 현대화랑에서 4월 10일(수)부터 6월 16일(일)까지 열린 '한국화의 두 거장 청전(靑田)·소정(小亭)'에서 '찬란한 고요의 순간, 청전 이상범의 산수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주현 동창

이주현(영교 90) 동창

한국씨티은행 업무·전산그룹장에 이주현 동창이 선임되었다. 2000년 씨티은행에 입행한 이 동창은 지난해 7월부터 기업·소비자금융업무본부장으로 일해 왔다.



박형주 동창

박형주(서양 91) 동창

5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31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소영 동창

이소영(조소 91) 동창

3월 12일(화)부터 29일(금)까지

아트스페이스 플라스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혜정(동양 91) 동창

이혜정 동창의 개인전 LIGHT & SPACE이 6월 1일(토)부터 16 일(일)까지 하우스 갤러리(뮤지엄 하우스 바이 옥션)에서 열렸다. 주제는 '빛과 공간을 다루는 Space Develop Artist'이다.



이혜정 동창

정성애(의학 91) 동창

'제23회 JW중외학술대상'에 모교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정성애 동창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4 월 13일(토)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자의사회 제63차 정기총회에서 거행되었다.



정성애 동창

김미경(조소 92) 동창

김미경 동창이 북촌에 위치한 갤러리 제이콥1212를 지난 2018년 12월 12일(수)에 개관하였다.



김미경 동창

안연숙(장미 92) 동창

안연숙 동창이 5월 25일(토)부터 29일(수)까지 갤러리 드플로허에서 'Reminiscence 2019'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정소연(서양 92) 동창

이화익갤러리에서 개인전 '면벽수행'을 4월 10일(수)부터 30일(화)까지 열었다.

김정아(동양 93) 동창

4월 12일(금)부터 19일(금)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김정아 동창의 '길. 빛. 길' 전시회가

열렸다. 블루스톤갤러리가 한가람미술관 제7전 시실 B1에서 여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 동창의 작품 55점이 전시되었다.

이유미(조소 93) 동창

조각가 이유미 동창이 개인전 '누구라도...' 전을 서울 종로구 필동 세컨드에비뉴갤러리에서 5월 10일(금)부터 6월 9일(일)까지 열었다.



이유미 동창

이효경(문정 93) 동창

워싱턴대학(UW) 한국학도서관 사서인 이효경 동창이 2019년 'UW 최고 사서(Distinguished Librarian)'로 선정되었다. '최고 사서'는 UW 내 전체 16개 도서관의 100여 명 사서 가운데 한 명에 게만 주어지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다. 시상식은 6월 13일(목)에 개최되었다.



이효경 동창

오수경(서양 94) 동창

오수경 동창이 6월 한 달간 갤러리 뜨락에서 '고향 생각'을 주제로 장성공공도서관 기획 초대전을 열었다. 유화와 종이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16점의 서양화 작품을 전시하였다.



오수경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4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서초동 갤러리 너트에서 '기억의 조각 재생하기'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다. 이 동창은 실험적인 모색으로 자수조형의 시공간적 영역 확장을 통해 한국 자수의 새로운 예술성을 보여 주고 있다.

김미령(관현 96) 동창

5월 28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

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다. 김 동창은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선화예술·고등에 출강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며, 헤럴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의 초빙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령 동창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미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송혜영 동창이 4월 27일(토) 제1회 웨더포드 컬리지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참가자와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송 동창은 연주가, 교육자, 음악행정가로서의 자질을 크게 인정받아 웨더포드 컬리지로부터 ‘피아노 대가’의 존칭과 영예를 수여했다.



송혜영 동창

이지은(조소 97) 동창

3월 12일(화)부터 23일(토)까지 Far Beyond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지은 동창

강서경(동양 00) 동창

5월 11일(토)부터 11월 24일(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 열리는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에 총 3점의 작품을 설치하여 전시 중이다.



강서경 동창



남윤수 동창

남윤수(섬예 02) 동창

5월 18일(토)부터 6월 1일(토)까지 남윤수 동창이 개인전 ‘Draw The Message Paint The Heart’를

MCL Grand Theater Art Center에서 열었다. 남 동창은 미국 텍사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세연(피아노 04)·김주혜(피아노 06)·이원정(피아노 08)·홍유리(피아노 08)·민지애(피아노 11)·박안나(피아노 11) 동창

예인예술기획

주최,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 후원으로, 제7회 예림회 피아노 듀오 시리즈가 6월 28일(금)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렸다.



(왼쪽 위부터) 김세연·김주혜·민지애·박안나·이원정·홍유리 동창

이소명(서양 04) 동창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이소명 동창의 네 번째 개인전이 5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열렸다. 전시 주제는 ‘인프라—라이프러스(Infra—Lifeless)’다.

이우진(생명 04) 동창

이우진 동창이 신테카바이오 법률특허 자문으로 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영국 노팅햄대학에서 종양학 석사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뇌과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모교 법학전문 석사 과정을 밟아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예일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와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지희 동창

김지희(동양 07) 동창

김지희 동창의 개인전 ‘Twinkle Twinkle’이 4월 17일(수)부터 6월

17일(월)까지 CHOICE ART COMPANY에서 전시됐다. ‘Sealed Smile’ 연작으로 알려진 김 동창은 ‘욕망’을 주제로 현대인의 도상을 표현했다.

천정은(관현 07) 동창

6월 9일(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플루트 독주회를 열었다. 천정은 동창은 현재 엠케이 예술 아티스트 및 아이레플루트 양상을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천정은 동창

주희정(피아노 08) 동창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남가주 대학교) 음대에서 Keyboard Collaborative Arts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있는 주희정 동창의 첫 박사 학위 리사이틀이 3월 7일(목) USC Newnan Recital Hall에서 열렸다.



주희정 동창

황세희(한음 08) 동창

황세희 동창이 두 번째 판소리 발표회 ‘향성(香聲)’을 6월 1일(토) 충남 계룡 사계고택 은농재에서 개최했다. 황 동창은 현재 예인집단 가시 동인, 충남학교문화예술교育센터 국악예술강사, 한국국악협회 계룡시지부 판소리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세희 동창

이현주(철학 09) 동창

이현주 동창이 ‘Note: Object 1’으로 ‘제4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4월 12일(금) 개최되었으며,



이현주 동창

대상 상금은 500만 원이다.

정민경(의학 10) 동창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정민경 동창이 최근 개최된 제39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3차 국제 심포지엄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서지은(생명 11) 동창

우석대학교 서지은 동창이 부총장 겸 교육혁신본부장에 임명됐다. 서 동창은 1988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도서관장, 교무국제처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대학 발전을 이끌었다.

유재연(서양 11) 동창

유재연 동창의 개인전 ‘The Night is Young’이 갤러리 룩스에서 4월 18일(목)부터 5월 19일(일)까지 열렸다.

김효진(동양 14) 동창

김효진 동창의 개인전 ‘나무의 아이’가 5월 21일(화)부터 6월 24일(월)까지 아트스페이스 루에서 열렸다.



김효진 동창

이소영(도예 15) 동창

4월 23일(화)부터 5월 4일(토)까지 김세중미술관에서 개인전 ‘코라로의 회귀’를 가졌다.

신다인(도예 16) 동창

3월 6일(수)부터 17일(일)까지 김세중미술관에서 개인전 ‘다시 그곳을 바라본다’를 열었다.

김경현(한음 17) 동창

5월 25일(토)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초청으로 ‘소리꾼 김경현 판소리 5바탕전 무대’를 가졌다.

동창이 펴낸 책



소리치는 나무

김선진(국문 66)
김선진 지음 / 도서출판 소소리

꾸밈없이 일상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어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책이다. 김선진 동창은 한국현대시인상, 이화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펜 한국본부 위원장, 여성작가 위원회 이사이다.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

김경애(커미부 72)
김경애 지음 / 푸른사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 여성 82명의 생애를 구술 자료로 정리한 연구서이다. 한국 여성사에서 처음으로 원폭 피해 여성의 삶을 다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경애 동창은 동덕여대 교수, 한국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춤의 역사

김명숙(무용 76)
김명숙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춤의 역사를 음악과 미술, 건축을 포함한 한국 예술 전반의 시대적·문화적 흐름 속에서 통찰하였다. 여러 예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 및 춤의 위상이 변하면서 등장한 춤 단체들의 자취도 살펴보는 책이다. 김명숙 동창은 모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김명숙 늘 휘무용단 예술감독,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국립무용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통의 자가 발전소

김애양(의학 84)
김애양 지음 / 재남

산부인과 의사이자 수필가인 김애양 동창이 아홉 번째 수필집을 폈다. 이 책에서 김 동창은 소담한 생활감정과 생생한 진료 경험을 통해 삶을 통찰한다. 김 동창은 산부인과 개원의이며, 2008년 제4회 남촌문학상을 수상했다.



동독민 이주사

최승완(사학 85)
최승완 지음 / 서해문집

동독 역사를 전공한 최승완 동창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동독 이탈 주민의 전모를 다룬 책을 폈다. 최 동창은 모교 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 국교원대와 모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강의 중이다.

오늘도 일용할 고단함

전희주(철학 91)
전희주 지음 / 혜화동
17편의 그림과 소설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 전희주 동창은 <횡정민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두 시의 데이트> <전현무의 가요광장> <윤도현의 두시의 데이트> 등의 작가로 활동했다.



북한 연극을 읽다

김정수(독문 92)
김정수 지음 / 경진출판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 연극을 희곡이 아닌 공연적 관점, 즉 연기, 연출, 무대, 음악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김정수 동창은 모교 독문과 졸업 후 동국대 연극영화학 석·박사, 모교 북한학 박사 학위를 이수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이다.



인생은 초콜릿

양소영(법학 93)
양소영 지음 / 티아고워드
방송인이다 변호사인 양소영 동창이 달콤 쌉싸름한 삶, 사랑, 사람 이야기를 담은 첫 에세이를 폈다. 양소영 동창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법률문제 전반을 상담해 주고 있는 방송인이다. 가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승인을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다.



액체 다이아몬드, 불가리안 로즈로, 잡티를 잡다!

NEW 아이소이 잡티세럼Ⅱ



이화여대 동창생
깜짝선물/특별할인
COUPON

이화여대 동창생들에 한해
**가로수길 컨셉스토어에서
깜짝선물을 드립니다.**

하단 쿠폰을 매장직원에게 보여주시고,
깜짝선물과 특별할인까지 받아가세요!

- 쿠폰 사용 기한 : 2019. 08.31까지
- 매장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10 / TEL. 02-3446-1501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



‘집’이 아닌 ‘마음’을 짓겠다는 약속 땀과 열정으로 담아냈기에...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땀과 열정을 담아
작품으로 탄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지은 우미 '린' –
우미건설은 더 나은 주거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